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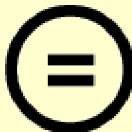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박 충 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권해수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oluntary Activity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박 충 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권해수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oluntary Activity

위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박 충 우

박충우의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박 충 우

복잡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가가 달성해야하는 목표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은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동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의 확산, 거래비용의 감소, 정책수행의 정당성 확보, 감시비용 절약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유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발달로 도시 빈민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농촌의 고령화 등의 문제와 사회 내 복잡성의 증가로 공공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역할을 보조하는 민간복지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었다. 자원봉사를 통해 국가는 역할 부담 감소, 안정적 재정 운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민간복지기관은 재정적인 부담 절감,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존감 제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 취득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초기단계이며, 의무적 봉사활동에서 성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띤 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변수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재 상황 및 인식을 조사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 ver 20.0을 사용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을 표준화 할 수 있는 기술통계 분석과 응답형태를 나타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측정도구를 위한 기초분석으로 측정지표 간 신뢰성 분석, 통제변수로 설정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수의 측정지표에 있어서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였다. 먼저 네트워크 변수에서 모임참여 정도(3.016)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였다. 특히, 지역사회활동 경험 정도(2.128)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신뢰 변수는 가족 간 신뢰도(4.212)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변수에서 모두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여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신뢰 변수와 달리 규범 변수는 혐오시설 수용성(2.455)을 제외한 4개의 측정 변수에서 모두 보통(3.0)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며 문화차이수용성(3.707)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매개변수 자원봉사동기 중 이타적 동기에 관한 측정문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한 만족감(3.941)이 가장 큰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사회를 위한 희생 준비 정도(2.536)는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기적 동기에 관한 측정문항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실질적 성과 필요성 인식 정도(3.241)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 필요성 인식 정도(2.750)는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은 등간척도를 활용한 참여빈도(2.054) 및 참여강도와 관련한 적극적 참여 여부(2.257), 시간과 비용 투자 여부(2.433)가 모두 보통(3.0)이하의 평균을 나타냈다.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X21)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X23)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는 자원봉사의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중 이기적 동기(0.194)에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는 자원봉사의 동기로서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은 이타적 동기(0.713)와 이기적 동기(0.372)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성된 자원봉사동기 중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0.779)을 미치며, 이기적 동기는 이타적 동기 경로를 거쳐 간접효과(0.447)와 전체효과(0.32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기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지만,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영향을 미쳐 자원봉사활동에 영향력을 갖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신뢰 변수는 자원봉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효과(0.377),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통한 간접효과(0.149) 및 전체효과(0.526)를 가져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직접효과는 갖지 않았으나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변수를 통해 간접효과(0.511)와 전체효과(0.32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제고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네트워크측면에서 대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및 참여 프

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동기 중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대학생들의 이기적 동기를 자극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의 확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시간 및 마일리지 적립으로 공공시설 입장료, 가맹점 물품 가격 할인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원봉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중 신뢰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범위를 국가 안보와 같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들의 높은 규범인식을 발현시켜 자원봉사활동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신규 프로그램 운용 시 기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봉사자의 홍보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외부의 비자원봉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원봉사정신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 4개 대학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동기만을 변수로 구성했지만 이러한 변수 이외에 봉사자 개인의 성향, 조직 요인과 같은 다양한 내·외부 요인들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주요어】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 동기,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의 의의 -----	3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	4
1. 연구대상과 범위 -----	4
2. 연구방법 -----	6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적 자본의 의의와 구성요소 -----	7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7
2.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기능 -----	15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20
제2절 자원봉사의 의의와 특성 -----	28
1. 자원봉사의 정의 -----	28
2. 자원봉사 현황 -----	31
3. 자원봉사의 특성 -----	35
4. 자원봉사의 동기 -----	38
제3절 사회적 자본, 동기 및 자원봉사의 관계 -----	42
1.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 -----	42
2. 자원봉사 동기의 영향 -----	46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간 관계	49
----------------------	----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52
1. 연구모형	52
2. 변수의 정의	53
3. 변수의 측정	58
제2절 가설의 설정	62
1.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 동기의 관계	62
2. 자원봉사 동기와 자원봉사의 관계	62
3.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	62
4. 자원봉사 동기의 매개효과	64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1절 자료수집과 표본분석	65
제2절 기초통계분석	67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67
2. 측정도구의 검증	71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75
4. 상관관계	77
제3절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79
1. 연구모형 검증	79
2. 가설검증	86

제4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97
1. 기초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97
2. 교차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100
3. 구조모형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101

제5장 결 론

제1절 논의의 요약과 함의 -----	105
----------------------	-----

제2절 연구의 한계 -----	109
------------------	-----

【참고문헌】 -----	111
---------------------	-----

【부 록】 -----	126
--------------------	-----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2-1>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점	8
<표 2-2> 사회적 자본 개념의 비교	11
<표 2-3> 국내외 학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구성요소	20
<표 2-4>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	30
<표 2-5> 연도-성별-연령별 자원봉사자 수	32
<표 2-6> 직업별 자원봉사자 수	33
<표 2-7> 사회적 자본-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46
<표 2-8>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의 종류	49
<표 3-1> 변수의 구성	57
<표 3-2> 설문문항의 구성	60
<표 4-1> 조사대상의 통계적 특성	66
<표 4-2> 독립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69
<표 4-3> 종속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70
<표 4-4> 매개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71
<표 4-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2
<표 4-6> 신뢰도 분석 결과	75
<표 4-7> 성별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 교차분석 결과	76
<표 4-8> 경제적 수준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 교차분석 결과	77
<표 4-9> 상관관계 분석 결과	78
<표 4-10> 최초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81
<표 4-11> 최초연구모형의 경로추정 결과	82
<표 4-12> 수정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85
<표 4-13> 수정연구모형의 경로추정 결과	86
<표 4-14> 가설검증 결과	93
<표 4-15> 효과분해 결과	95

【 그림 목 차 】

<그림 3-1> 연구모형 -----	52
<그림 4-1> 최초연구모형 -----	80
<그림 4-2> 수정연구모형 -----	84
<그림 4-3> 구조모형의 경로치 -----	94



HANSUNG
UNIVERSIT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1. 연구목적

사회적 자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복잡성이 증가한 현재 국가가 달성해야하는 목표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은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동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형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 함께 제3의 자본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은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유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Putnam, 1993, 1995).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뢰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를 들 수 있다. 신뢰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위험물을 낮추려는 행위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타 부가가치 창출 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신뢰는 정책추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정책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규범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 기회주의, 이기주의 또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게 되면, 별도의 감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 전체적인 유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이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발달과 인구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도시 내 빈민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농촌의 고령화 등과 사회 내 복잡성의 증가로 공공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복지서비

스의 필요성 증대로 인하여 그에 따른 서비스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복지서비스 인력 충원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2014년까지 7천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산재해있다. 이와 같은 정부역할 보충의 필요에 따라 민간복지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간분야의 인력 역시 계속해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분야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성화 된 것이 자원봉사라 할 수 있다.

사회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견고히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역할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부분의 역할 분담과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최일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은 자원봉사자들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에 드는 일정 경비를 지급받는 유급자원봉사도 있지만, 자원봉사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자원봉사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 줄 수 있으며, 자원봉사로 인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의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중요성과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 중에서도 대학생 시기의 자원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입시를 위한 자발적 의미가 퇴색된 “의무적 봉사활동”이 다시 성인기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으로서 대학생 시기는 한 사람의 인생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서 중·고등학교

에서 교육 이수 후 최종적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사회에 나가기 전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 확장, 자존감 형성의 좋은 기회를 갖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정부의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소이며, 한 개인의 생애주기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재 상황 및 인식을 조사하여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빈번히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이 자존감 혹은 시민의식과 같은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반대로, 자원봉사자의 개인 및 조직특성이나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형태의 연구가 존재한다. 사회적 자본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자의 이타성·자아실현성·만족도나 자원봉사의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나 반대로, 집단활동 참여 및 자원봉사자의 특성 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유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연구마다 변수구성에 있어서 종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자원봉사 변수 구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집단 활동 참여 수준·집단성격·여건,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개인적·조직적 요인 및 내부전략·외부전략 요인, 단순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보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형성된 개인의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동기 사이의 관계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 변수를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의 하위변수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사이에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 분석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 자원봉사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한 본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규범), 자원봉사동기(이기적·이타적 동기), 자원봉사활동(빈도, 기간, 강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시민단체, 집단 활동 참여를 경험한 대학생, 일반 성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생애주기 상 초기단계로서 청소년¹⁾의 중요

1) 청소년의 개념은 어떠한 학문영역에서 다루느냐 혹은 어떠한 국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내려지는 정의가 각각 다르다. 백과사전에서 정의는 ‘청소년(靑少年)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학생’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우리나라 법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인 자를 법률행위의 책임능력에 제한이 있는 미성년자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을 형사책임능력자로 보고 형사소송법은 16세 미만인 자를 증인선언무능력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을 보호대상자로 나타내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미만을 근로소년으로 규정하며,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을 범죄소년이라는 범법자로 규정한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의 발급과 소지 의무를 만17세 이상의 자에게

성을 고려해봤을 때, 이들의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적 범위를 청소년으로 한정한다. 또한 청소년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 중에서도 대학생으로 대상을 설정한다.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교 3곳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 1곳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와 잉여자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정책추진을 위한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범을 통해서도 기회주의와 불법행위의 제재를 가져와 질서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자본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적·사회적으로 갖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역할과 이를 보충하는 민간영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민간영역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영역의 인적·물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역할부담 완화, 민간영역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유기적 서비스 제공,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존감 획득, 다양한 경험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갖는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동기를 매개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호혜적 규범·신뢰의 개념, 형성 및 기능, 구성요소,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및 특징, 세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에 대한 인식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아동, 미성년, 소년 등으로 불리며 법률에 따라 청소년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훈, 2008).

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 자원봉사활동의 인식 수준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국내·외의 전문서적,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이론적 논의를 할 것이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설과 연구모형을 구성한다.

이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 20.0을 사용하며,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을 표준화 할 수 있는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과 응답형태를 나타내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다. 이후 측정도구를 위한 기초분석으로 측정지표 간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 통제변수로 설정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crosstabs),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또한, 통계프로그램 AMOS 18.0을 사용하여 선행연구 검토결과 구성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검증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구성요소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 개인에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relational)이며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공공재(public good)이기도 하다(박순미, 2000)²⁾. 오늘날 사회적 자본의 연구와 가장 유사한 논리를 표명한 사람은 Durkhei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이차적 집단들이 존재하여 개인들을 사회생활로 끌어 들일 수 있어야 하며, 개인들의 행위는 공동체의 속성과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승현, 2008). 요컨대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역동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정치학자 Tocqueville로, 그는 1835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독립 초기의 미국사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조직을 구성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파악했는데, 이를 가리켜 사회적 자본이라 명명하였다(서순탁, 2001)³⁾.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한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1980년대 이르러 프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1986)와 미국의

2) 박순미(2000)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신뢰, 의무, 기대감, 규범, 영향력, 연대 등을 제시하고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는 사유재의 특성과 공공재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한다.

3) 토크빌은 지역사회 수준(level of community)에서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정신,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civic engagement), 공공재(common good)에 대한 개인적 책무와 소속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안병일, 2009).

사회학자 Coleman(1988) 등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Bourdieu(1986)는 정책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학술적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자들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영역이 비교적 등한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본도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각각 비교하여 이론적인 의의는 무엇이고, 자본의 소유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자본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다르며, 자본의 존재 형태는 무엇이며, 분석의 수준이나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점

구분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의 개념에 대한 수정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 소유자	개인 (자본가)	개인 (노동자)	가족 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 (사회집단)
자본 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 형태	물질적 대상 (토지 및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과 지식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	사회적 관계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연구의 핵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인 착취관계	교육과정과 임금사이의 연관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간 계급 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 유형
분석 단위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 또는 집단

자료: 유석춘 · 장미혜(2002)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나 기회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네트워크, 자원, 그리고 관계라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크기와 자원의 양이 사회적 자본의 분명한 두 요소로 작용한다. 요컨대, 사회적 자본의 목적을 경제적 자본의 확보로 보고 있으며, 분석단위는 계급경쟁 속에 있는 개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곽현근·유현숙, 2011).

또한 Bourdieu는 지적 자격의 총체에 상응하는 문화자본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도중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의 자본 개념은 경제적 접근법에 속한다. 그는 자본을 투자활동을 통해 축적되고 상속에 의해 전달되며, 투자 기회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사적-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Bonnewitz, 1997). 요컨대 Bourdieu의 자본이론은 한계효용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패러다임을 경제외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이데올로기적·상징적 차원의 차별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김태룡, 2009). 구체적으로 그는 ‘한 행위자가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의 크기,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보유한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이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면 커지고, 네트워크 내의 타인들이 가진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크다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이다(이현기, 2010). 그러나 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물질적, 자본적 동기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경제적 자본관계에 종속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가장 널리 사용하게 한 이로서 정확하지 않게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개인의 사회적 연대로부터 나타나는 개인들의 자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Bourdieu가 사회자본을 엘리트집단이 그들의 특권을 재생산하는데 대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면, Coleman은 비엘리트집단의 사회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범위를 확장시켰다(남궁근, 2007). 그는 ‘사회적 자본이 자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 자본이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없을 때 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Coleman, 1990). 특히 Coleman은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사회자본의 형태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개인들에게 유용한 사회적 관계는 의무와 기대로 표현되는 신뢰, 정보소통의 통로, 규범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제재를 들 수 있다(한상미, 2007b).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 복합적인 실체로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의 특정행위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타 유형의 자본(인적·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 또한 특정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Coleman, 1990). 그는 특정행위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은 유익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여타 자본과는 달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구조 속에 사회자본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기, 2004).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사회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사회적 자본은 특정 조직, 시장,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Bourdieu와 Coleman 이후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Putnam에 의해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Making Democracy Work(1993)’라는 책에서 이탈리아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성숙한 정치적(민주적) 수준을 보이는 이유가 남부에 비해 북부지역이 가진 높은 사회적 자본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Putnam은

지역의 결사체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 수준이나 행태야말로 사회자본의 저장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문구독, 자발적 결사체 멤버십, 정치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와 같은 지표들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그의 결론은 수평조직들을 통해 호혜의 규범과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축적되어온 북부지역이 사회·정치적 관계가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남부지역보다 훨씬 높은 제도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곽현근·유현숙, 2011). 이러한 연구결과로서 제도는 정치에 영향을 주며, 역사에 의해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접근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의 실제 성과는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자본과는 달리 개인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이며 사회적 자본은 축적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므로 사회적 자본의 함은 궁극적으로 자기강화를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안병일, 2009). 더불어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성실한 계약 이행,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 위험의 분담,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처 등 긴밀한 협력관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사회적 자본 개념의 비교

구분	개념정의	목적	분석단위
Bourdieu	집단적 사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사회 계층간 경쟁측면에서의 개인
Coleman	행위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개인
Putnam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

자료: Winter(2000); 곽현근·유현숙(2011) 재인용.

이외에도 다수의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Fukuyama 역시 Putnam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이용해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또는 “협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가치와 규범에 진실과 책임의식이 따르며 호혜성이 있어야만 사회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그는 사회적 자본은 둘 이상 개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이 규범들은 실제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화 된다고 한다. 이러한 규범이 사회적 자본이 되려면 집단 내의 협력을 이끌 수 있어야 하므로 이들은 정직, 공동체의 유지, 의무나 호혜성의 준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덕목과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모형과 개입주의적인 모형을 대비시켜서 북미와 아시아를 비교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들이고 이러한 점이 이 두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즉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신뢰의 정도가 그 사회의 경제적 특징을 결정 짓게 되고 경제발전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안병일, 2009). 다시 말해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 등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필요조건일 뿐이며,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성, 도덕적 의무감,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등이 사회적 관습으로 사회 속에 배태되어 있어야 한다(정기환 외, 2006).

한편,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인 신뢰나 기대 등으로 인식하지 않은 Portes(1998)는 사회적 자본을 “연결망이나 사회조직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근원을 완성적 동기(consummative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완성적 동기는 행위자가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규범이 집단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도구적 동기는 상호성의 교환과 공동체적인 의무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강요된 교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정기환 외, 2006).

Seragedin & Grootaert(2000)는 Putnam이 제기한 수평적 관계와 Coleman이 확대한 수직적 관계에 더하여 정부, 정권, 사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인 관계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공식화, 제도화된 관계 및 구조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몇 가지 다른 개념 및 이론과 관련을 맺으면서 분석되고 있는데, 주로 사회적 자본의 원인보다는 효과와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신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자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자본이 성장, 빈곤탈출 등 사회개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과 시민사회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시민의 정치참여와도 함께 분석하기도 한다(안병일, 2009).

Woolcock(1998)은 이민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이 미시적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구조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배태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이루는 사회적 연대(social ties)를,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조직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상승효과(synergy)를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른 조직들과 연계성을 갖는 것이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 사회제도 속에서 기업이 지니는 능력과 신용(institutional capacity and credibility)을 의미한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미시적 혹은 거시적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과 긍정적 관계에 놓이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한 공동체가 발전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integration)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넘어선 다른 주류 사회와의 연계성(linkage)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기환 외, 2006).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그 안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속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되는 경향이 있다(한상미, 2007a).

첫째,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인적 자본과 같이 시설이나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물질 자본과 인적자본은 사적재화에 해당되고,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화라고 할 수 있다(임현균, 2004; 홍현미라, 2005). 요컨대 둘 이상의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분석단위 특성이 사회적 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의 관계구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자기 이익의 실질적 원천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이다(Portes, 1998). 어떤 행위주체 한쪽이 관계를 철회하면 나머지 다른 쪽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또한 어떠한 관계가 공유되었던 간에 그 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한 어떤 행위자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임우석, 2009).

둘째,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적 자본은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Bourdieu, 1986). 사회적 자본은 형성되기는 어려워도 파괴되기는 쉬우며, 손상된 사회적 자본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할 수 있다(구혜정, 2003).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이 특정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투자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

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영합(zero-sum)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정합(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난다(Adler · Kwon, 2000).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Putnam, 1993).

넷째, 경제적 재화의 교환이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적 교환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주고받은 도움에 대해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에 기반을 둔 자원인데 그 호혜성은 불확실성, 위험성 혹은 타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취약하며 원천적으로 불안정적인 성격을 갖는다(유석춘 외, 2003).

2.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기능

1) 사회적 자본의 형성 조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Coleman이 제시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찬웅, 2000).

첫째, 사회적 관계나 사회구조의 폐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발하게 자원을 제공하고 받기 위해서는 도움을 제공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회구조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신뢰성(trustworthiness of social structure)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직 · 간접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을수록, 사회적 상호

작용의 범위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을수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개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역시 개인이 자발적인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가 폐쇄적일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용이해진다. 요컨대 사회구조의 폐쇄성은 개인이 도움을 제공하면 반드시 그 대상으로부터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사회 구성원들이 기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로 구축된 사회구조의 신뢰성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제3자의 매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형성 범위를 확대시킨다.

둘째, 사회적 안정성이다. 가령 사회 내에 개인의 물리적, 사회적 이동이 극심해서 사람들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에 투자할 유인이 작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힘들다. Zucker(1986)는 전통사회에서 신뢰가 개인과 집단별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성, 평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호작용하여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는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파악할 시간이나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는 형성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는 힘들어 질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개인의 이동에 제한이 가해져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반대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용이할 것이다.

셋째, 개인중심 혹은 공동체 이데올로기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해를 개인의 이해보다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이데올로기나 규범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쉽다. 반면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중심인 사회에서는 개인·집단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는 달리 개인적 요인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Lin(1999)은 개인의 사회계층상 지위가 높을수록, 물리적·인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 자본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상쇄하기 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숙종 외(2008)의 종로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의 설별, 연령, 학력 등이 신뢰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나 연구자에 따라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가족, 조직, 지역, 제도, 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사회적 자본의 기능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수반한다.

사회적 자본의 가장 강력한 순기능은 사회 내 개인 간의 상호관계를 활성화해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transaction cost)⁴⁾을 감소시키고 비정상적인 경제행위인 지대추구(rentseeking)⁵⁾를 최소화하게 된다(염종호, 2011). 상호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정보 공유의 확대로 높은 신뢰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서면 계약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없는 만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최소의 요건을 구비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채권과 채무가 형성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 간 관계의 확장 및 활성화를 통해 정보

4) 모든 거래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계약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은 정보의 수집비용, 흥정하는 비용, 계약을 실천하는 비용, 계약이 준수되는지를 감시하는 비용, 계약 자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비용, 계약을 수정하는 비용, 계약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비용 모두가 포함된다.

5) 지대란 정부가 기업이나 특정집단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집단으로 하여금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령액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지대추구란 국가의 후원아래 부의 이전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원낭비활동이다(박민정, 2006).

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aphapiet & Ghoshal, 1998). Coleman(1998)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한 형태를 사회적 관계에 내재해 있는 정보의 잠재력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리한 사회적 관계 내에 위치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한편 공식·비공식적 제도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잘 정착된 사회에서는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발달되어 있으며, 상호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서는 정보왜곡이 최소화된다(김성태, 2012).

둘째,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Serageldin & Grootaert, 2000). 요컨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줌으로써 강한 호혜의 규범이 자리 잡도록 한다(염중호, 2011).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서 일부 계층과 집단을 소외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조남익, 2009). 그러나 집단적 의사결정이 사회 및 집단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면 효과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렇게 구성원들에 의해 규범이 확립된다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복종을 증진시킬 것이며, 지나친 통제를 필요하지 않게 만든다. 또한 규범이 효과적으로 기회주의를 제재할 수 있게 되면, 감시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투자와 경제적 거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의 핵심은 일정한 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Bourdieu, 1986).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정책수행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행위자들에 의해 행위가 조정되지 않고 각자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이 형성, 축적되면 구성원들의 활동이 원활해짐으로써 조직의 역동성이 증가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증진된다. 더불어 신뢰문화가 체화되면 생산성이 향상되며, 더욱 효과적인 생산 단위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을 경고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강력한 결속력이 집단구성원에게 ‘과잉요구’(overdemand)를 유발함으로써 구성원의 성공을 차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나영선 외, 2005). 즉, 고도의 연대공동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아늑한’ 집단관계는 엄청난 ‘무임승차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나태한 구성원들이 공유된 공동체규범의 도움으로 성공적 구성원들에게 각종 요구를 무리하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적 축적과 성공의 기회는 사라져 버리며,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감소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비정의적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이종모, 2012).

둘째, 강력한 유대관계와 신뢰는 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로 인해 타인은 ‘배제’되어 진다(조남익, 2009).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효율성 증가 등의 혜택을 얻는다면,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내부인과 외부인의 구분을 통한 강력한 집단결속은 외부인에 대한 이해를 낮추고,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협력과 신뢰를 보여주게 된다. 요컨대 이러한 배타적 결속행위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좁은 범위에서 친밀하게 연결시키는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조직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신뢰를 하락시켜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동체나 집단에 대한 참여는 순응(conformity)에 대한 요구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며(나영선 외, 2005),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율적인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 결국, 사회통제의 수준이 매우 높을 경우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게 된

다. 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간섭에 저항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범이 존재한다면, 구성원과의 마찰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여 작동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청소년의 불량씨클 및 일진회와 같이 나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태이다.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주창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구성요인들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국내외 학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구성요소

학자	정의	구성요소	공통요소
Bourdieu (1986)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 되어 지속적인 연결망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Coleman (1990)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다양한 복합체로서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한 행동을 촉진시킴	· 신뢰 · 호혜적 규범	· 신뢰
Putnam (1993;1995)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유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 신뢰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Innes (1994)	사회적 자본은 합의형성의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이익을 조정	· 신뢰 · 호혜적 규범 · 민주성	
Fukuyama	공동체 연대와 결속을 유지하는 신뢰에 기	· 신뢰	

(1995;2004)	초하여 지역·국가 또는 구성원은 협력하는 습관을 가지고 생산성을 증대시킴	· 호혜적 규범
Newton (1997)	시민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규범과 가치연결망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발적으로 생산된 집합적 자원	· 민주성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Portes (1998)	사회네트워크 혹은 다른 사회적 구조 안에 멤버십을 소유하여 이익을 지키는 행위자들의 능력	· 신뢰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Nahapiet& Ghoshal (1998)	개인이나 사회적 단위가 소유한 관계네트워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들의 합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Healey (1998)	형성요소로 지적자본은 지식자원, 사회적 자본으로는 관계자원, 정치적 자본으로는 동원능력을 들고 있음. 이중 관계자원은 지식과 인적자원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형성을 의미함	· 네트워크
Woolcock (1998)	한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관계의 정보, 신뢰, 규범들	· 신뢰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Lin (2000)	인간, 조직, 지역사회(communitiy)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	· 신뢰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Misztal (2000)	결속과 협동을 필요로 하는 호혜주의 규범과 결사체 참여의 네트워크	· 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박희봉 김명환 (2000)	사회적 활동을 통해 축적되며 개인 및 사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 신뢰 · 규범 · 네트워크
주성수 (2003)	특정 통제력을 획득한 개인과 집단이 소속된 연줄 네트워크 내에서 형성되는 통제력의 교환	· 네트워크 · 통제력교환

소진광 (2004)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표추구	· 민주성 · 네트워크
임승빈 이승중 (2005)	주민의 자발적 의지를 결집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민주성 · 지방정부의 역량 · 네트워크
윤두섭 오승은 (2005)	지방정부의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신뢰제도 및 규범연계망의 형성	· 신뢰 · 네트워크 · 지역사회의 제도
박희봉 이희창 (2005)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연계하여 삶의 만족추구	· 사회경제적 요인 · 신뢰 · 네트워크
백명자 (2006)	신뢰와 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관계형성으로 상호이익을 위해 협조적이고 협력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참여활동과정	· 신뢰 · 규범 · 네트워크 · 민주성
안병일 (2008) 이경태 (2011)	집단 간 혹은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신뢰감이나 협동을 촉진하는 호혜적 규범, 가치 및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 풍요로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민주의식	· 사회적신뢰 · 상호호혜적 규범 · 네트워크 · 민주시민의식

자료: 안병일(2009) 일부 수정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회학적 개념의 하나로 발전시킨 Coleman(1990)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네트워크와 신뢰, 그리고 사회규범에 주목한다.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태도나 집단의 문화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구성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의 존재와 특성뿐만 아니라 역할, 규칙, 절차와 같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구조나 제도까지를 포함하며, 인지적 측면의 사회

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반면, 인지적 사회자본은 개인들이 가지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범, 가치, 믿음, 태도를 말하며, 분석의 초점을 개인에 둔다(곽현근·유현숙, 2011).

위와 같이 아직까지 사회적 자본의 합의된 개념 및 요소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에서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분석적 측면에서 구조적(structural) 측면의 네트워크, 인지적(cognitive) 측면의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신뢰 요소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적인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사람들 사이의 유대(tie)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는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의 실체 가운데 가장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론에서 네트워크는 구조화되지 않은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연계(linkage), 교류(association) 또는 구조화된 조직이나 네트워크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organization or network)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상미, 2007a). 요컨대 네트워크의 형태와 양은 사회구조를 설명해주고,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장하는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문영주, 2011).

앞서 네트워크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자본은 발생되지 않는다. 결국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논의할 때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와 상호부조가 속해있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다(장유미, 2011).

사회적 자본에서 네트워크의 존재는 자연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는 제도적 수준에서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며 제도적 의례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는 의식적·무의식적 사회관계를 수립하거나 재생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투자전략에 따른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장유미, 2011).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속성에 따라 교량형 네트워크, 결속형 네트워크, 연계형 네트워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교량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비교적 비슷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형성된 네트워크이다.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내의 교류를 의미하며, 인종,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들 수 있다(Putnam, 2000). 연계형 네트워크(linking network)는 공식적인 또는 제도화된 권위가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 또는 비슷하지 않은 상황의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Woolcock, 1998). 한 개인은 결속형, 교량형 또는 연계형의 어느 속성을 가진 하나의 네트워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성을 띤 2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참여한다(한상미, 2007a).⁶⁾

2) 신뢰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⁷⁾는 사회나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개념으로 국가의 경쟁능력과 번영 창출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Fukuyama, 1997), 기업 간 관계의 원활유 역할(Arrow, 1974)을 하여 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질, 타당

6) 네트워크는 속성론적 접근법에 따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교량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형태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나누는 것은 비교를 위한 편의상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7) 경제사회학자들이 사회자본으로서 신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한국 시장과 국가의 실패로, 한국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묘사한 후쿠야마(Fukuyama)의 「트러스트」가 1996년 번역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최종렬, 2004).

성, 시기적절성을 보여준다(Adler & Kwon, 2002).

신뢰란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행위가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의 이해에 부응하도록 상대가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는 선택적 행위(이재혁, 1998)’, 또는 ‘한 행위자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Gambetta, 1988; 박찬웅, 1998)’이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협동을 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일회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이재열, 1998; 박찬웅, 1998). 더불어 신뢰의 결여 또는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개방적, 일반적, 넓은 신뢰의 부족은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최해봉, 2012).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면서 동시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메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박찬웅, 2000).

신뢰는 상호 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상대가 기대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신뢰할만한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복잡한 문제 해결절차를 단순화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호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조인근, 2008). 이와 같이 신뢰는 지식 및 정보의 교환과 공유, 의사소통의 원활화, 각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조직 내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고, 도덕적 위험 및 역선택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신뢰는 잠재적 생산성과 사회적 거래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 한편, 모든 개인들이 상호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때문에 신뢰가

조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목표 달성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이 추가되어야 한다(문영주, 2011). 즉, 집단의 신뢰에는 Pagden(1988)이 제시한 구성원들이 갖는 조직에 대한 신뢰인 공적 신뢰⁸⁾와 구성원들 상호간의 신뢰인 사적 신뢰가 공존한다. 이에 따라 신뢰는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네트워크로 어떻게 조직화, 구조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에 중요성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사이에는 긴밀한 역동적 관계가 있으며,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의 필요조건이 되고 공적 신뢰의 정도는 사적 신뢰의 축적의 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재혁, 1998; 김남선·김만희, 2000; 김영정, 2006; 한상미, 2011).

3) 호혜적 규범

호혜성⁹⁾은 주어야 하는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상호 얽혀 있다는 것으로 개인들과 집단의 목적성취를 촉진시키는 구성요소이다. 사회과학내에서 호혜성(reciprocity)은 합리적·개인주의적 접근과 규범적·비개인주의적 접근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를 제한된 호혜성(restricted reciprocity), 후자를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이라고 한다(한상미, 2011). 제한된 호혜성은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의무이며 도와줬던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제한된 호혜성은 두 사람간의 관계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화된

8) 경제사회학자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연줄에 기반을 둔 사적 신뢰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는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연줄에 기반한 사적 영역의 신뢰가 공적 영역의 신뢰를 식민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저신뢰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최종렬, 2004).

9) 호혜성에 제일 먼저 눈을 돌린 사람은 Malinowski(1932)로 원시사회에서는 교환이 호혜성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빚져 있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폴라니(Polanyi, 1945, 1957)는 호혜성을 “재분배”와 “시장교환”과 함께 경제적 통합형식의 하나로 개념화하였다. 재분배는 집단의 추장이나 지도자가 곡물이나 사냥감을 안전한 창고에 모아 저장했다가, 공동의 축제를 여는 동안 그 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시장교환은 가격에 따라 생산량과 그 분배방식을 결정한다. 호혜성은 행정적 위계질서를 통한 재분배도 아니고 시장을 통한 교환도 아닌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둔 교환유형이다. 이렇듯 이들 모두는 호혜성의 핵심을 “도덕적 의무감”으로 본다(최종렬, 2004).

호혜성은 제한된 호혜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친족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 명 이상의 집단에서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은 그가 도와준 그 특정한 사람으로부터의 보상뿐만 아니라 교환관계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 의한 보상도 기대한다는 것이다(김태룡·안희정, 2009).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간혹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불안정하다. 요컨대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두터운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인 동시에 집합적 자산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Mauss(1990)에 의하면 호혜성은 받은 선물의 가치가 즉각적이든 아니면 시간적으로 후에 발생하게 되든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호혜성은 재생산 된다고 보았다. 개인들은 호혜성을 내재화하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규범’적이라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주고 다시 자발적으로 되돌려주는 사회적 의무에 기초하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본다(류석춘 외, 2008). 규범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역할과 그에 따른 역할간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과 역할의 관계에 기초한 네트워크의 존재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이다(Coleman, 1988; 유석춘·장미혜, 2002).

또한, 집단 내의 공유된 호혜성의 규범은 구성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처벌하고, 이에 따라 공동체에 반하는 일탈행동을 줄이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법제도와 시장질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범위와 정도에서 집단 내 구성원의 상호 협조를 가져올 수 있다(이재혁, 2005). 이러한 규범으로 인해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개인보다는 집단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게 하며, 사회적 지원, 지위, 명예, 집단 지지 등의 보상에 의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 특히, Polanyi(1977)는 부족경제의 상황에서 ‘집단 내’의 통일이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때 집단 내의 적대감과 다툼을 감소시키고,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호혜성과 같은 통합수단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호혜 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공리주의적 자기 이익’이라는 요소로부터 서로 경의를 표하는 동료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훈훈한 경험과 만족감’이라는 요소로 관심을 이동케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한상미, 2007a).

제2절 자원봉사의 의의와 특성

1. 자원봉사의 정의

현대에 있어 자원봉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허성호·정태연, 2011). 이러한 자원봉사는 ‘자원’과 ‘봉사’의 합성어로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러한 “활동”을 의미한다. 영어로 volunteer는 프랑스어 volontaire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는 다시 라틴어의 voluntarius, voluntas에 기원을 두고 있다(Merriam Webster Dictionary). 이러한 기원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는 자신의 의지(will)에 의한 자율적 활동을 의미하며, 국가·법·조직·개인에 의해 강요받지 않으면서 물질적 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voluntary action, voluntary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discretionary participation, social participation, common interest activity, citizen involvement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국가, 사회,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¹⁰⁾

10) 자원봉사는 크게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와 자원주의(voluntarism)로 대표된다. 자원봉사주의는 자원봉사자 개인과 그들이 제공하는 실제적 서비스 및 그들이 관련을 맺고 있는 전문직을 의미하며, 자원주의는 인간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자발적 참여의 철학 및 원칙을 의미한다(남기철, 2007). 1980년대 후기에 와서 사전에 수록되기 시작한 자원봉사주의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행동(volunteering)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자원주의는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두 용어의 사용에 크게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가까운 친척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개인 및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무보수 활동’으로 정의하고 (Zimmeck, 2009), 미국사회사업협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집단·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사의 다양한 조직 활동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최일섭, 1995). 한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1997)는 자원봉사를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학자별로 살펴보면, Smith(1975)는 자원봉사를 ‘생물사회학적 요인, 강압적인 요인, 또는 반대급부(direct remuneration)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본질적으로 자유재량과 심리적 이익(소속감, 호평, 자아실현)의 추구에 의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 집단, 혹은 주민들의 행위’로 정의하고, 최일섭(2005)은 자원봉사를 ‘오늘날 민주복지사회의 한 성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발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이며, 서로가 존엄성을 갖는 평등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부상조적 연대정신을 발휘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순자(2009)는 ‘자유意志로써 자신이 선택한 기관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정의한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대체로 공익성(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무보수성(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자발성(강제 없이 자신의 자유意志로)과 지속성(혹은 체계성: 지속성으로 활동)이 특징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성용, 2006; 김영호, 2003; 류기형,

1999; 조휘일, 199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집단이 환경, 개인, 집단을 대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금전적 반대급부, 타인에 의한 강압, 법에 의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2-4>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핵심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8)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자발적 행위
영국자원봉사 센터 (2009)	가까운 친척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개인 및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무보수 활동	무보수 활동
미국사회사업 협의회 (1995)	개인·집단·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사의 다양한 조직 활동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무보수, 자발적 참여
한국자원봉사 단체협의회 (1997)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낮은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	자발적 참여, 이타심, 자기실현
Smith (1975)	생물사회학적 요인, 강압적인 요인, 또는 반대급부(direct remuneration)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본질적으로 자유재량과 심리적 이익(소속감, 호평, 자아실현)의 추구에 의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 집단, 혹은 주민들의 행위	자유재량, 심리적 이익
최일섭 (2005)	오늘날 민주복지사회의 한 성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발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이며, 서로가 존엄성을 갖는 평등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부상조적 연대정신을 발휘하는 활동	자발적, 주체적, 연대정신
이순자 (2009)	자유의로써 자신이 선택한 기관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	자유의지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자원봉사는 1995년 5월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이후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교과과정에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중·고교 생활기록부상 사회봉사 기록 등의 과정을 거치며 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대학총장들을 주축으로 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구성되어 대학의 봉사기능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었다.

대학은 최고의 지식인 집단으로서 이론학습과 학문의 전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를 솔선수범하여 수행해 줄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은 대학 내 풍부하고 훌륭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오효근·김옥, 2008).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대학생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체 자원봉사자의 수는 '05년 대비 '10년 현재 약3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10년 현재 6,310,334명으로 '09년 대비 946,899명(18%)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40대가 각각 27%, 19%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20대(17%), 50대(14%), 30대(12%), 60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20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10대 시절의 자원봉사활동이 앞서 특성과 동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타적인 동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이기적이 동기에 의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10대의 자원봉사활동이 20대에 지속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교육, 유인 제공 등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표 2-5> 연도-성별-연령별 자원봉사자 수

연도별	총계	성별		20세미만
		남	여	
2005	2,083,704	900,214	1,183,490	461,728
2006	2,681,193	1,148,458	1,532,735	577,475
2007	3,279,911	1,433,642	1,846,269	731,312
2008	4,396,633	1,890,169	2,506,464	1,102,429
2009	5,363,435	2,290,367	3,073,068	1,392,766
2010	6,310,334	2,703,280	3,607,054	1,675,675

연도별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2005	280,234	291,274	495,536	345,960
2006	387,578	377,498	615,256	440,742
2007	491,402	491,573	717,813	501,151
2008	654,826	665,965	917,345	628,507
2009	884,771	717,047	1,075,208	763,458
2010	1,098,612	774,930	1,213,168	913,321

자료: 행정안전부(2011)

더불어 직업별 자원봉사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별로는 '10년 현재 중고생 963,383명(15%), 주부 840,287명(13%), 회사원 342,508명(5%), 대학생 292,812명(5%), 자영업 210,426명(3%), 공무원 157,799명(2%), 서비스업 114,568명(2%), 퇴직자 61,516명(1%)으로 중고생과 주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의 증가율(전체 203%)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타(597%)를 제외하고, 공무원(263%), 대학생(143%)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취업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 추가나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

봉사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6> 직업별 자원봉사자 수

연도별	총계	직업별			
		주부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
2005	2,083,704	502,577	197,828	43,413	100,827
2006	2,681,193	558,257	214,130	63,945	73,409
2007	3,279,911	532,565	287,325	98,350	96,403
2008	4,396,633	707,903	304,786	120,817	130,519
2009	5,363,435	746,603	297,135	123,041	60,942
2010	6,310,334	840,287	342,508	157,799	114,568
연도별	직업별				
	자영업	퇴직자	대학생	중고생	기타
2005	173,199	35,027	120,459	433,299	477,075
2006	181,468	71,223	133,647	504,300	880,815
2007	161,784	31,298	189,289	563,409	1,319,488
2008	218,316	23,156	211,344	788,491	1,892,299
2009	158,502	49,950	231,120	861,772	2,834,370
2010	210,426	61,516	292,812	964,383	3,326,035

자료: 행정안전부(2011)

부연하자면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는 사회참여, 자기계발 등 다양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학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뒷받침하여 이들의 역량을 사회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를 통하여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학생 시기는 그동안 초·중·고교 시기를 통하여 경험해 온 혹은 새롭게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을 향후 사회인이 되

어서도 계속해 전 생애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옥, 2011).

현외성(1998)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학생은 장차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치에 있다. 때문에 학문적 지식과 인격적 역량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회문제의 의미를 생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은 자기 전공을 통해 학습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지역 주민을 돕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보완하는 학습의 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체득하게 된다. 대학생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가치관 및 여러 요인들로 인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문제의 배경에 대한 시야를 갖출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할 수 없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중 봉사 대상자를 만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성숙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과정에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게 되고, 사람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함으로써 자신, 가정, 사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자원봉사활동은 대학생에게 다양한 환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과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인이 되기 이전에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이다.

3. 자원봉사의 특성

앞선 개념 정의를 통해 나타나는 자원봉사의 특성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타성, 사회복지성, 자존감, 지속성, 학습성, 헌신성, 협동성, 전문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발성

자발성은 무보수성과 함께 자원봉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타인의 명령이나 구속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여 자기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자발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주체성에 의해 활동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활동의 참여를 권유받을 수는 있지만, 참여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권력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김태룡·안희정, 2009). 자발성에 의한 자원봉사가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로 할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이 배가될 수 있다.

2) 무보수성

자원봉사에서 자발성만큼이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무보수성이다. 자원봉사에 있어 무보수성이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활동의 목적이 경제적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원칙적으로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김범수 외, 2004).

한편, 최근에는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

런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여 활동을 원활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3) 이타성

이타성에서 이타(利他)란 다른 이에게 이로운 것으로 자기가 얻은 공덕과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성, 공동체성, 사회복지성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요건을 갖춘 활동이더라도 사회의 구성요소인 개인, 집단,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친척, 회사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자원봉사라 할 수 없다(김한구 외, 1997). 더불어 이타성을 이해할 때 활동의 대상이 꼭 개인이나 집단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자원봉사센터의 정의에서 보듯이 환경이 그 대상이 되어 불특정 다수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타성에 대해 Smith(1983)는 자원봉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유형·무형의 인센티브에 의해 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4) 지속성

지속성은 자원봉사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등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동기와 만족도 또는 지속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최근에는 참여동기 보다는 기관의 관리에 따라 통제될 수 있는 지속동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오효근·김숙, 2008; 구혜영, 2006; 류기형 외, 2005; 이용필 외, 2003; Gidron; 1985). 이는 그만큼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자발성에 의해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이후 지속의 여부는 자원봉사자 관리기관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기관은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자원봉사자의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5) 자존감

자존감(self-esteem)은 자아실현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형태의 용어로 표현되며,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자존감은 자신이 인식한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인간의 생애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실제 이미지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와의 일치정도를 반영하는 자아에 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의 감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Siber & Tippitt, 1965). 이로 인해 자신을 한 인간이자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고 봉사경험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자존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자원봉사에서 봉사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동기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 성취감, 폭넓은 인간관계 등의 심리적 보상과 자원봉사자가 일정한 기간 공식적인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경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할 수도 있는 학습성 두 가지 모두 큰 의미에서 자아실현으로 볼 수 있다(김범수 외, 2006). 특히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분야와 특성에 맞는 활동에 참여했을 때, 자존감을 얻는데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4. 자원봉사의 동기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다면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개인들은 박애주의적 동기, 종교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 즐거움 또는 삶의 변화 동기, 자기증진적 동기, 사회적 동기 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niford, Carpenter & Grider, 1997). 자원봉사 참여자는 자신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Tschirhart et al., 2001). 따라서 봉사자의 동기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각 봉사자에게 적절한 방법과 수준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간행동을 다루는 동기이론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업적인 일의 상황에서는 각 개인이 기본적인 행동의 동기를 이기적인 동기로 볼 수 있으나 자원봉사의 상황에서는 이타적 동기를 중시동기로 볼 수 있다(임정순, 2004). 이타적인 동기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행해진 행동이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하며,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고, 다른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ober(1988)는 진화적 이타주의(evolutionary altruism)와 고유의 이타주의(vernacular altruism)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행위자와 수혜자 사이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이론의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더 향상시켜 숙련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회가 오면 취업하기 용이한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존재한다(Murnighan et al, 1993). 이와 같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기대이론

Levin & Tolman의 인지개념에 뿌리를 둔 기대이론은 Vroom(1964)에 의해 이론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동기(motivation)를 ‘여러 자발적 행동들 중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어떤 개인의 행동은 각 행동대안이 가지는 힘(동기수준)이 가장 큰 쪽으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임학빈·서명원, 1999). 더불어 인간은 활동의 수행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활동의 결과가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특정 활동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만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보상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들을 평가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특정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이경근, 2010).

기대이론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활동으로 기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속성이 감소한다. 즉,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기대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한다고 하여 기대와 보상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한다(오효근·김옥, 2008). 뿐만 아니라 기대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외에도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다루는 포괄적인 이론이다(최은숙, 2006).

더불어 인간행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대이론에서는 ‘선호성(일에 대한 흥미), 수단성(욕구충족에 대한 신념), 기대성(자원봉사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을 들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봉사업무에 흥미를 가지고,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면 자원봉사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최유미, 2010). 따라서 대학생의 자원봉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신이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여러 형태의 보상수준이 기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기대성이 높아져 자원봉사

의 지속성도 높아질 수 있다(오효근·김옥, 2008).

2) 사회교환이론

Blau(1964)는 사회교환은 반드시 주고받는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교환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가치지향적 태도와 암묵적 기대의 이원구조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해석하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환이 있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황명희, 2009). 마찬가지로 최은숙(2006)은 사회교환이론에서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용과 이익을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거래를 강조한다. 요컨대 사람들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추구하는 자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사회교환이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도 그러한 교환행위의 한 가지 형태로 본다. 여기에서 대학생 자원봉사는 자유의지에 의해 수행되므로 물질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인정, 칭찬, 존경, 감사 등 심리적 보상 같은 다른 형태의 보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옥, 2011).

또한 이성록(2001)은 사회교환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가치지향적 태도와 암묵적 기대의 이원구조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해하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환이 있게 된다고 한다. 사회교환이론은 두 사람 이상 활동의 교환이며, 대인관계(동료 자원봉사자, 활동대상자, 자원봉사 관리자) 속에서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조건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의 가치가 크게 되며,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사회적 교환행동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사회교환이론은 타인지향적 동기와 자გი지향적 동기를 동시에 갖는 자원봉사자의 행동과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오효근·김옥, 2008). 그러나 교환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개인에게 돌아오는 어떤 혜택만을 보상으로 봄으로써 행동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정희영, 2007).

3) 봉사학습이론

봉사학습은 1930년대 John Dewey의 ‘경험을 통한 학습론’에 기반한 경험적 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험적 학습이론은 실천과 경험중심의 행동에 의한 교육(learning by doing)을 의미한다. 봉사학습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자원봉사는 대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된 기제이고, 대학 기능 수행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험적 교육의 한 형태이다. 자원봉사과정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관련된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체험하는 학습과정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며, 이를 통한 자기성찰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경험과 학습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에 따라 학습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치하는 경우 봉사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옥, 2011).

봉사학습은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과 봉사를 받는 사람 또는 집단 간의 상호성과 반성적 고찰 그리고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통찰학습으로 자원봉사의 지속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성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활동대상자 모두가 상호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성적 고찰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적 고찰을 할 때 그들의 활동이 교육적 성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통찰학습은 생애발달 과정에서의 성숙발달과 스스로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통찰학습자로서의 자기발견 관점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 학습의 자기통찰 과정으로 본다(오효근·김옥, 2008).

제3절 사회적 자본, 동기 및 자원봉사의 관계

1.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 요인(이숙중 · 최준규 · 유희정, 2008; 최윤정, 2008; 구병주, 2011; 곽현근 · 유현숙, 2011; 하성규 · 박기덕, 2011 등)과 사회적 자본의 효과(배상욱 · 윤한성, 2010; 이숙중 · 김희경 · 최준규, 2008; 이미숙, 2011; 이인자 · 한세희 · 이희선, 2011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동기나 지속성(김영호, 2005; 유용식 · 손호중, 2009; 김숙경, 2005; 김기현, 2010; 김성희 · 김유경, 2010; 홍연숙, 2010; 강승애 · 서세훈 · 조상우, 2010 등)과 자원봉사활동의 효과(구혜영, 2006; 류나미 · 최은희, 2007; 김덕주, 2009; 문성호 · 문호영, 2009; 허성호 · 정태연, 2010; 박소연 · 김진경 · 이택영, 2011; 장덕희 · 이명옥 · 양점도, 2011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리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변수의 구성에 있어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두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긍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데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가족, 친구, 동료의 요청 및 권유, 조직의 권유, 부모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지적한다(이강현 외, 2008; Independent Sector, 1996; Smith, 1998).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연계망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에 대해 분석한 Brown & Ferriss(2004)의 연구결과 사회적 연계망은 자원봉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지 않으나, 사회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에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Bekkers(2004)의 경우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사회자본 관련변수들이 기부, 특히 자원봉사와 같은 시간기부와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와 자원봉사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Wilson & Musick(1997)은 사회적 자본 변수인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가구 내 어린이 수가 자원봉사활동과 정의 독립적 관계를 갖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 아닌 가족, 친구,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함께 참여하거나 지지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Musick, Wilson & Bynum(2000)은 그들의 공식적 자원봉사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회의참석, 종교예배참석, 자원봉사요청과 같은 변수들은 자원봉사시간에 대하여 독립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위의 변수들의 횟수가 증가 할수록 자원봉사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urr, Choi, Mutchler & Caro(2005)는 미국인 생의변화연구(American's Changing Livies Survey)를 분석한 연구에서 자원봉사와 비공식 도움주기는 서로 관련되었고, 동시에 사회적 자본 변수, 비공식 사회적 활동과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는 자원봉사시간을 증가시키는데 독립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자원봉사를 직접 요청받는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도 알 수 있어 풍부한 자원봉사자 인력 풀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김영옥, 2011).

이외에도 Tang(2006)은 사회적 자본 변수인 비공식 사회적 통합과 친구 수가 자원봉사 지표 변수인 자원봉사시간 및 봉사조직 수와 독립적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여기에서는 종속변수로서 기

존의 연구들에서 자원봉사시간만을 주로 사용한 것에 비해 봉사조직의 수를 추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적인 여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활동이 광범위해짐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Goss(1999)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volunteering)이 신뢰와 지역사회에서의 폭넓은 연결망 형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가족관계, 근로활동, 종교 활동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강화되어 자원봉사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개인을 사회 연결망에 통합시키는 주요한 기제인 가족제도는 구성원을 사회와 통합시키며 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김영옥, 2011). 앞서의 연구들과 달리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협력적 행동의 관계에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추가한 Gachter, Herrmann & Thoni(2004)는 러시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 및 신뢰태도와 협력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신뢰태도에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있고, 신뢰태도는 자발적 협력(voluntary cooperation)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즉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해 공정하다고 지각하고, 타인을 기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믿을수록 더욱더 공동체에 기여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태룡·안희정(2009)의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원도지역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한 연구 결과 사회자본이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와 호혜성이 이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중에서도 네트워크가 호혜성에 비해 두 배의 기여율을 보였다. 그 다음 자원봉사의 자아실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와 호혜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 결과 개인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전체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결과, 네트워크, 호혜성, 기관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 이현기(2010)는 중년층 45~54세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갖는 직접효과와 인적자본에 대하여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 비공식 상호작용, 공식적 상호작용, 지지네트워크, 사회적 통합(혼인상태)과 종속변수로 자원봉사 단체 참여 여부를 설정하였다. 또한 노인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자본의 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적자본 변수(학력, 임금소득, 건강, 인지기능)를 통제변수로 추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공식적 상호작용, 비공식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유무 변수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통합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이나 임금과 같은 인적자본 변수가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김병록(2011)은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 연구했는데, 양국에서 모두 사회적 자본의 객관적 가치(신뢰)와 객관적 관계(사회 네트워크 참여수준)가 주민의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 중 객관적 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여졌다. 이상의 최근 수행된 사회적 자본에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사회적 자본-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결과
강철희	2007	전 국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기부 -자원봉사	-신뢰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 사이의 선순환 적 관계
김태룡 안희정	2009	강원도지역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이타성 -자아실현성 -봉사활동· 환경 만족도	이타성에 네트워크와 호혜성, 자아실현성과 만족도에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이 정(+)의 유의미한 영향
이현기	2010	중고령층 자원봉사자	-비공식 상호작용 -공식적 상호작용 -지지네트워크 -사회통합정도	-자원봉사 활동참여	공식적 상호작용, 비 공식 상호작용, 네트 워크의 유무가 자원 봉사활동 참여에 정 (+)의 유의미한 영향
김병록	2011	전라남도 목포시와 중국 산둥성 연대시 주민	-주관적 가치 (일반신뢰) -객관적 관계 (사회네트워크 참여수준)	-주민참여 · 접촉활동 · 토론활동 · 진정활동	주민참여에 대하여 사회네트워크만이 정 (+)의 유의미한 영향

2. 자원봉사 동기의 영향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기술습득, 직업훈련, 봉사의식, 사회적 인정, 친교, 자존감, 종교, 무료함, 죄의식 완화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본다(Clary et al., 1992; Cnaan & Goldberg, 1991; Gillespie &

King, 1985).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자발성에 기초한 내재적인 참여 동기를 중시한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현외성, 1997).

전통적으로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에 의해 행위가 유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Decharms, 1983). 이는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조절이며, 자기목적적인 활동으로서 활동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홍연숙, 2010). 이와 달리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외부 자극에 의해 행위가 유발되고 처벌을 회피하거나 외적 요구 및 외적으로 암시된 보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존재한다(Decharms, 1983). 한 예로, 학점을 취득을 위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참여하는 이유가 활동 자체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는 외재적이다. 더욱이 개인이 의무감을 경험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처신하도록 하는 압력, 외적인 근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을 선택할 수 없다(Ceci & Ryan, 1985). 자원봉사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참여의 만족 및 자긍심과의 관계를 분석한 박봉규·조재완(2004)의 연구결과, 내재적 동기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재적 동기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내재적 동기는 자원봉사자의 만족에 높은 수준으로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외재적 동기는 자긍심과 마찬가지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조금 달리 자원봉사의 동기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Wiersma(1992)는 이타주의를 ‘타인의 복지를 위한 비이기적인 관심과 배려 또는 헌신’이라고 정의한다. 이타적 동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과나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움을 주는 주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이기적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상체계는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이나 직업훈련, 명성 등 매우 다양하다(Mueller, 1975; Condie et al., 1976). 한 예로, 자원봉사 참여 동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교육기회와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의 이기적 동기가 자원봉사 활동 지속시간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Lammers, 1991). 따라서 이타적 동기가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초기 동기의 중심동기일 수는 있지만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기적 동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박시사 외, 2008).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확보에 기관에서의 인정과 보상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이희태, 2001), 여기서 인정과 보상은 이기적 동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Chamber(2000)는 인정과 보상의 다양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현금, 신용, 현물, 기회, 사회적 보상, 정서적 보상이라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Hecter(1987)와 Timuss(2002)는 긍정적 제재인 인정과 보상이 구성원을 지역 사회자본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희생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가치를 널리 알려 개인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인정이나 보상은 직접적이고 일정 유형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거나 무형의 것도 포함한다.

<표 2-8>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의 종류

현금	준 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	사회적 인정	정서적 보상
- 교통비 지급 - 식비 지급 - 봉사활동 재료비	- 상품권 - 할인쿠폰 - 주차권	- 기념품 - 기타	- 국내외행사 참여기회 - 파티 참석기회 - 교육훈련 참석기회 - 새업무나 직위부여	- 표창 - 승진취업 시 가산점 - 인증서 - 언론매체홍보	- 감사편지 - 언어적 비언어적 감사표시 - 생일파티

자료: 우정자(2011)

대학생의 사회봉사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한수정(1999)의 분석결과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과목을 신청한 대학생들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가 44%였다. 이에 반해 이기적 동기(미래 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점 취득을 위해, 여가선용,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는 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효근·김욱(2008), 김현진·이동수(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간 관계

사회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은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라는 자연발생적 혹은 제도화된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신뢰와 상호 호혜성 간의 상호작용(사회행위)을 통해 형성되는 자본을 말한다(이미숙, 2011).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뢰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대인적 관계를 의미하며,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존경과 우의 등 특별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호혜적 규

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고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말한다. 일반화된 규범은 집합적 행위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연계 형태를 의미하며,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관계구조이다.

Putnam(1993; 1995)은 개인 간의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의 규범을 성장시키고, 조정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며, 사회적 신뢰와 주민간의 연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이미숙, 2011).¹¹⁾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규범 성장과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발생한다. 만일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형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담는 그릇으로서 신뢰와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숙미, 2002). 아울러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더불어 Cohen(1997)은 국가나 시민적 제도(규범)가 구조화되고 자의성을 배제하는 절차적 공정성이나 정의로운 법적 규범은 사회전반의 보편적 신뢰에 필수조건이라고 하고 있으며, Rothstein(2005)은 이를 확대한 스웨덴 실증연구를 통해 정치적 대의기구 및 미디어와 같은 통제기구 보다 법원이나 경찰, 교육제도와 복지제도 같은 집행기구의 불편부당성이 사회적 신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는 보편적으로 특수한 신뢰와 보편적 신뢰로 구분된다. 특수한 신뢰(사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집단과 같은 매우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을 신뢰한다. 그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경쟁자로 느껴지며 될 수 있으면 피

11)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특성을 수평적인 조직으로 설명한다. 요컨대 수직적·폐쇄적인 조직은 수평적·개방적인 조직과 달리 신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신뢰의 개인적, 사회적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보편적 신뢰(사회신뢰)가 높은 사람은 도덕적 규범으로써 가족이나 집단을 벗어난 타인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여긴다. 타인을 믿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동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비해 특수한 신뢰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뢰를 일컫는다.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만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즉 개인에게 구성되어 있는 신뢰는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 및 조직의 크기와 규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김승현, 2008).

이러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한 김영옥(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분석결과 네트워크는 호혜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호혜적 규범이 최종적으로 대인관계 신뢰와 기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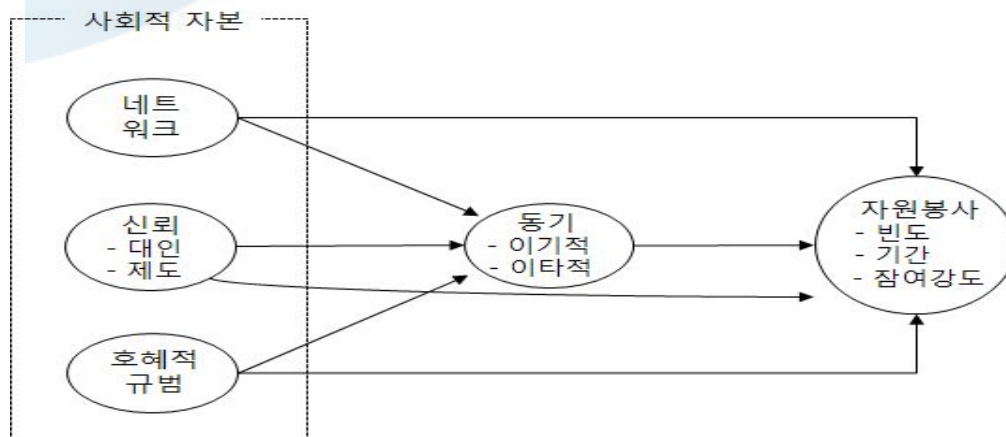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1. 연구모형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자원봉사활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보이는 한계점으로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나 자원봉사자의 동기,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사회적 자본과 종속변수로 자원봉사활동을 설정하고,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추가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제시해보면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¹²⁾,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변수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빈도와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변수를 매개하는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통제변수로서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을 설정했다.

2. 변수의 정의

1) 독립변수

Bou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나 기회의 총합’이라고 정의하며,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개인 또는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정의한다.

독립변수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주는 이익은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인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초점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조직 구성단위간의 정보와 지식, 의사소통, 참여의 통로로서, 협력적 행위의 원활화를 돕는 기능을 수행하며 종국적으로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문유석 외, 2009).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12) 신뢰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기관신뢰/대인신뢰(김영옥, 2011), 사회신뢰/대인신뢰/구체적 신뢰(이숙종 외 2008), 개인신뢰/제도신뢰(김태룡·안희정, 2009)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한다.

김영옥(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친밀관계 정도, 모임참여 정도, 지역사회 활동관심정도, 지역사회활동경험정도’를 하위 변수로 구성하였다.

신뢰에 대해 Lin(2001)은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로, Coleman(1988)은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정의한다(한상미, 2007a). 또한 이러한 신뢰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뢰는 ‘자신 이외의 행위 대상(개인, 공공기관 등)이 자신의 이해와 일치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한다. 개인에게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상호작용과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대인신뢰는 김영옥(2011)의 연구를 참고해 ‘가족간 신뢰도, 이웃간 신뢰도, 거래관계 신뢰도’로 구성하고, 제도신뢰는 김태룡(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학교에 대한 신뢰도,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하위 변수로 구성하였다.

호혜적 규범에 대해 문유석 외(2009)는 ‘개인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양식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준거의 틀’로, 서진완·박희봉(2003)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규범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반이 되는 공유의식을 유발시켜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며 규범 준수를 통한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상진·한진수, 2006). 이러한 기능을 가진 호혜적 규범을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형성되어 있는 공유된 가치’로 정의하며, 규범을 통해 서로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호혜적 규범의 하위변수로는 김태룡(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 불우이웃에 대한 수용성, 혐오시설에 대한 수용성, 이견에 대한 수용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을 하위 변수로 설정하였다.

2) 종속변수

자원봉사에 대해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Smith(1975)는 ‘생물사회학적 요인, 강압적인 요인, 반대급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본질적으로 자유재량과 심리적 이익(소속감, 호평, 자아실현)의 추구에 의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 집단, 혹은 주민들의 행위’로 정의하고, 최일섭(2005)은 ‘오늘날 민주복지사회의 한 성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이며, 서로가 존엄성을 갖는 평등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부상조적 연대정신 발휘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집단이 환경, 개인, 집단을 대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금전적 반대급부, 타인에 의한 강압, 법에 의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성록(2001)은 자원봉사활동의 측정을 위해 ‘참여여부, 지속의지, 참여강도’ 변수를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속의지’변수의 하위 변수인 ‘활동기간’과 ‘참여강도’를 참고하여 종속변수의 하위변수를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강도’로 구성하였다.

3) 매개변수

동기에 대해 Steers & Porter(1991)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하는 내적 상태’ 혹은 ‘개인의 행위를 유발하고 지시하며 유지하는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힘’으로, Campbell & Pritchard(1976)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발휘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며, 업무에 대한 노력의 유발, 의향, 정도,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Katzell & Tomp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동기를 ‘개인의 행위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며 지지하는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동기를 본 연구는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로 나누어 검토하며, 이를 위해 김현진(2011)의 연구를 참고해 이타적 동기¹³⁾는 다시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동기’를 구분하였다.

4) 통제변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생활수준과 평균소득 등의 개인적 특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성록, 2001; 김육·송미영, 2006; 강승애·서세훈·조상우, 2010; 김효선·윤소영,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이를 매개하는 자원봉사자의 동기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초점이므로 개인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조작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접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위에서 언급한 변수들을 종합한 변수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Rainey & Steinbauer(1999)는 공공서비스동기를 개인, 국가 또는 인류라는 공동체의 이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로 정의하며, 공공서비스동기는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김현진, 2011).

<표 3-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하위변수	출처
독립변수	네트워크		친밀관계 정도	김영옥 (2011)
			모임참여 정도	
			지역사회활동관심 정도	
			지역사회활동경험 정도	
	신뢰	대인 신뢰	가족간 신뢰도	김영옥 (2011)
			이웃간 신뢰도	
			거래관계 신뢰도	
		제도 신뢰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김태룡 (2006)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학교에 대한 신뢰도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	
		호혜적 규범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	김태룡 (2006)
불우이웃에 대한 수용성				
혐오시설에 대한 수용성				
이견에 대한 수용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				
종속변수	자원봉사	참여빈도	이성록 (2001)	
		참여기간		
		참여강도		
매개변수	동기	이타적 동기	김현진 (2011)	
		이기적 동기		
통제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영옥(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인간관계가 수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서로의 고민거리를 거부감 없이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귀하는 각종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활동의 경험 이 어느 정도입니까’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두 번째 구성요소로서 신뢰는 자신 이외의 행위 대상(개인, 공공기관 등)이 자신의 이해와 일치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하며, 이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김영옥(2011) 연구의 ‘귀하는 가족 간에 신뢰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주변 이웃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주변 상인들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제도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태룡(2006)의 연구에서 ‘귀하는 지방의회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학교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사회단체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지역사회조직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를 원용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호혜적 규범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형성되어 있는 공유된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김태룡(2006) 연구에서 ‘귀하는 주변 외국인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귀하는 주변 불우이웃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귀하는 주변에 위치한 혐오시설에 대해 수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발생한 견해 차이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다른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수용하고 있습니까’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집단이 환경, 개인, 집단을 대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금전적 반대급부, 타인에 의한 강압, 법에 의한 강요

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성록(2001)의 연구에서 참여기간을 묻는 ‘자원봉사 활동경력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빈도를 묻는 ‘월 평균,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십니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와 참여강도를 묻는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매개변수인 동기는 개인의 행위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며 지지하는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현진(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견교환이 즐겁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만드는 일에 참여할만한 가치가 있다, 의미 있는 자원봉사는 나에게 중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면 기분이 좋다, 담당한 업무를 잘 수행한 경우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 개인적 이득과 무관하게 자원봉사를 한다, 개인적인 성공보다 사회에 대한 공헌이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높은 수입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 이익보다 나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12문항을 사용하고, 이기적 동기는 ‘내가 맡은 자원봉사업무를 잘 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스스로보다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원봉사업무에 구체적인 진전 내지 결실을 보기 원한다, 내가 하는 봉사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표시로 증서 또는 감사패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의 6문항을 이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3-2> 설문문항의 구성

구분	범주	변수명	측정지표	입력
독립변수	네트워킹	친밀관계 정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인간관계가 수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X1
			서로의 고민거리를 거부감 없이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X2
		모임참여 정도	귀하는 각종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X3
		지역사회활동 관심 정도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X4
		지역사회활동 경험 정도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활동의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X5
	신뢰	대인신뢰	귀하는 가족 간에 신뢰하고 있습니까	X6
			귀하는 주변 이웃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7
			귀하는 주변 상인들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8
		제도신뢰	귀하는 지방의회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9
			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10
			귀하는 학교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11
			귀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12
			귀하는 사회단체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13
			귀하는 지역사회조직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X14
	규범	외국인수용성	귀하는 주변 외국인과의 관계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X15
		불우이웃수용성	귀하는 주변 불우이웃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입니까	X16
		혐오시설수용성	귀하의 거주지 주변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X17
		이견수용성	귀하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발생한 견해 차이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X18
		문화차이수용성	귀하는 다른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수용하고 있습니까	X19
종속변수	자원봉사	참여빈도	월 평균,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십니까	X20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X21
		참여기간	자원봉사 활동경력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X22
		참여강도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X23

구 분	범 주	변수명	측정지표	입력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X24
매 개 변 수	동 기	이타적동기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X25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견교환이 즐겁다	X26
			자원봉사 프로그램 만드는 일에 참여할만한 가치가 있다	X27
			의미 있는 자원봉사는 나에게 중요하다	X28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X29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면 기분이 좋다	X30
			담당한 업무를 잘 수행한 경우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	X31
			개인적 이득과 무관하게 자원봉사를 한다	X32
			개인적인 성공보다 사회에 대한 공헌이 보다 큰 의미가 있다	X33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X34
			높은 수입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X35
			내 이익보다 나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X36
		이기적동기	내가 맡은 자원봉사업무를 잘 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X37
			나 자신이 스스로 보다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	X38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원봉사업무에 구체적인 진전 내지 결실을 보기 원한다	X39
			내가 하는 봉사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X40
			나는 현재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X41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표시로 증서 또는 감사패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X42
통제 변수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제2절 가설의 설정

1.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 동기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 자신 이외의 대상과 신뢰 구축,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규범 인식이 이뤄지고 있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 동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 동기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원봉사 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은 물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현외성, 1997)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한 내재적인 참여 동기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과나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기적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이나 직업훈련, 명성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ueller, 1975; Condie et al., 1976).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 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대학생의 자원봉사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개인은 가족, 친구, 동료의 요청 및 권유, 조직의 권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자원봉사를 직접 요청받는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도 알 수 있어 풍부한 자원봉사자 인력 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선행연구(김태룡·안희정, 2009; 이현기, 2010; 김병록, 2011)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자원봉사 동기의 매개효과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동기 및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자원봉사 동기가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 사이에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동기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대학생의 네트워크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대학생의 신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1절 자료수집과 표본분석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로 사회적 자본, 매개변수로 자원봉사자의 동기, 종속변수로 자원봉사활동을 설정하고, 이들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표본 추출방법은 편의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과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병행하였다. 표본 확보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교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1개 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년, 나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당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월에 해당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수집되었으며, 총 400부를 배포하여 341부가 회수됨으로써 약 85%의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20부는 제외한 총 32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ver 20.0을 사용하여 응답자료를 요약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자료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설문문항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crosstabs),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또한, AMOS 18.0을 사용하여 선행연구 검토결과 구성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형의 검증(즉, 잠재변수 간의 연결)과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했다.

<표 4-1> 조사대상의 통계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결측값 (%)
합계		321	100	—	—
성별	남자	166	51.7	52.4	4 (1.2)
	여자	151	47.0	100.0	
연령	18세 - 20세	138	43.0	43.5	4 (1.2)
	21세 - 23세	108	33.6	77.6	
	24세 - 26세	63	16.5	97.5	
	27세 이상	8	2.5	100.0	
학년	1학년	92	28.7	29.1	5 (1.6)
	2학년	110	34.3	63.9	
	3학년	60	18.7	82.9	
	4학년	54	16.8	100.0	
가정 월 평균수입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2	13.1	13.9	19 (5.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6	20.6	35.7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3	19.6	56.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1	15.9	73.3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8	8.7	82.3	
	600만원 이상	52	16.2	100.0	
생활수준	1 - 3	39	12.1	12.5	10 (3.1)
	4 - 7	244	76.0	91.0	
	8 - 10	28	8.7	100.0	
종교	기독교	72	22.4	22.7	4 (1.2)
	천주교	25	7.8	30.6	
	불교	32	10.0	40.7	
	원불교	1	0.3	41.0	
	무교	182	56.7	98.4	
	기타	5	1.6	100.0	

본 연구의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가정의 월 평균 수입, 생활수준, 종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과 같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166명(51.7%), 151명(47.0%)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 18세 - 20세 138명(43.0%), 21세 - 23세 108명(33.6%), 24세 - 26세 63명(16.5%), 27세 이상이 8명(2.5%)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110명(3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1학년 92명(28.7%), 3학년 60명(18.7%), 4학년 54명(16.8%) 순으로 보여졌다.

응답자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66명(2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63명(19.6%), 600만원 이상 52명(16.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1명(15.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2명(13.1%),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명(8.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하) - 5(중) - 10(상)'의 생활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4 - 7 244명(76.0%)으로 응답자의 2/3 이상이 중간정도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였으며, 1 - 3 39명(12.1%), 8 - 10 28명(8.7%) 순으로 보여졌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무교 182명(56.7%), 기독교 72명(22.4%), 불교 32명(10.0%), 천주교 25명(7.8%), 기타 5명(1.6%), 원불교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제2절 기초통계분석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1) 독립변수 기초통계분석

기초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요인

중 모임참여 정도(X3)의 평균이 3.0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활동 경험 정도(X5)의 평균은 2.12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자료의 분포모양이 평균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 즉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skewness)는 모두 양(+)의 값을 가져 관측 값들이 왼쪽에 모여 오른쪽으로 늘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분포 형태가 정규분포보다 더 중앙에 집중하는지, 즉 얼마나 뽕족한지를 나타내는 첨도(kurtosis)는 친밀관계 정도(X1), 모임참여 정도(X3)가 음(-)의 값을 보여 정규분포 보다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의 신뢰 요인 중 가족 간 신뢰도(X6)의 평균이 4.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의회 신뢰도(X9)의 평균은 2.24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신뢰 요인 총 9개의 측정문항 중 8개 항목이 보통(3.0) 이하의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는 가족 간 신뢰도(X6), 이웃 간 신뢰도(X7), 거래관계 신뢰도(X8), 학교 신뢰도(X11), 사회단체 신뢰도(X13)가 음(-)의 값을 가져 관측 값들이 오른쪽에 모여 왼쪽으로 늘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첨도는 변수 가족 간 신뢰도(X6), 지방의회 신뢰도(X9), 자치단체 신뢰도(X10), 지역사회조직 신뢰도(X14)가 양(+)의 값을 보여 정규분포 보다 뽕족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규범 요인에서는 문화차이수용성(X19)의 평균이 3.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혐오시설수용성(X17)의 평균은 2.4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규범 요인 총 5개의 측정문항 중 4개 항목이 보통(3.0) 이상의 값을 보여 전반적인 규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는 외국인수용성(X15), 불우이웃수용성(X16), 이견수용성(X18), 문화적차이수용성(X19)이 음(-)의 값을 가져 관측 값들이 오른쪽에 모여 왼쪽으로 늘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첨도는 불우이웃수용성(X16), 이견수용성(X18), 문화적차이수용성(X19)이 양(+)의 값을 보여 정규분포에 비해 뽕족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독립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X1	2.567	1.3542	.625	-.811
X2	2.922	.7438	.264	.750
X3	3.016	.8641	.116	-.234
X4	2.413	.9006	.613	.615
X5	2.128	.9775	.933	.764
X6	4.212	.8867	-1.213	1.450
X7	2.828	.8543	-.146	-.509
X8	2.801	.8464	-.043	-.719
X9	2.243	.7966	.544	.610
X10	2.439	.7847	.339	.291
X11	2.712	.9006	-.123	-.462
X12	2.255	1.1361	.515	-.778
X13	2.636	.8184	-.201	-.265
X14	2.548	.7695	.065	.046
X15	3.293	.9329	-.127	-.528
X16	3.290	.7543	-.491	.402
X17	2.455	.8507	.326	-.252
X18	3.528	.7536	-1.000	1.724
X19	3.707	.6903	-.631	.813

2) 종속변수 기초통계분석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에서 개방형 질문을 제외한 등간척도 중 시간·비용 투자 정도(X24)가 평균 2.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X21)가 2.054의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개방형 질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X20), 참여기간(X22-1, X22-2)의 평균은 각각 4.108, 5.428, 1.629로 나타났으나 높은 표준편차를 가져 응답자들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는 모든 측

정변수가 양(+)의 값을 가져 관측 값들이 왼쪽에 모여 오른쪽으로 늘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침도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X21), 적극적 참여 정도(X23), 시간·비용 투자 정도(X24)가 음(-)의 값을 보여 정규분포 보다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종속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침도
X20	4.108	8.5075	2.788	8.949
X21	2.054	1.0899	.665	-.393
X22-1	5.428	10.8775	3.119	11.097
X22-2	1.629	4.2705	6.350	57.193
X23	2.257	1.1138	.544	-.665
X24	2.433	1.1268	.339	-.788

3) 매개변수 기초통계분석

매개변수 자원봉사동기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보람 정도(X25),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만족감(X31)의 평균이 각각 3.894와 3.9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를 위한 희생 준비 정도(X34), 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 필요성 인식 정도(X40)의 평균이 각각 2.536과 2.750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는 의견교환이 즐거운 정도(X26), 사회를 위한 희생 준비 정도(X34), 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 필요성 인식 정도(X40)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가 음(-)의 값을 가져 관측 값들이 오른쪽에 모여 왼쪽으로 늘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침도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보람 정도(X25),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가치 인식 정도(X27), 자원봉사의 중요성 인식 정도(X28),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만족감(X31), 자신의 이익보다 의무를 우선시 정도(X36), 자원봉사를 통한 실질적 성과 필요성 인식 정도(X37), 자원봉사업무의 성과 달

성 필요성 인식 정도(X39)가 양(+)의 값을 보여 정규분포 보다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매개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X25	3.894	.8185	-.628	.640
X26	3.290	.9254	.012	-.054
X27	3.636	.8631	-.689	.691
X28	3.591	.9310	-.594	.471
X29	3.211	.9201	-.095	-.185
X30	3.284	1.0740	-.100	-.687
X31	3.941	.8658	-.902	1.390
X32	3.065	1.0056	-.243	-.484
X33	2.888	.9552	-.120	-.202
X34	2.536	.9550	.049	-.479
X35	2.900	.9062	-.131	-.036
X36	3.087	.8131	-.232	.309
X37	3.241	.8300	-.311	.271
X38	3.109	.8753	-.271	-.074
X39	3.188	.8601	-.194	.248
X40	2.750	.9421	.068	-.319
X41	3.172	.9212	-.324	-.110
X42	3.097	.9969	-.329	-.103

2. 측정도구의 검증

1)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과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본 논문에 사용된 설문문항들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표 4-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된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네트워크	X2	1.000	.308	—	—
	X3	2.071	.337	.700	2.958**
	X4	3.983	.619	1.369	2.909**
	X5	5.799	.830	1.990	2.915**
신뢰	X7	1.000	.428	—	—
	X8	1.035	.448	.168	6.158 ***
	X9	1.591	.731	.239	6.666 ***
	X10	1.583	.735	.236	6.702 ***
	X11	.987	.401	.193	5.128 ***
	X13	1.369	.612	.219	6.247 ***
	X14	1.587	.754	.234	6.786 ***
신뢰	X15	1.000	.389	—	—
	X16	1.310	.628	.255	5.131 ***
	X18	.880	.421	.197	4.476 ***
	X19	1.013	.530	.206	4.905 ***
자원봉사 활동	X21	1.000	.779	—	—
	X23	1.146	.876	.071	16.194 ***
	X24	1.104	.831	.071	15.477 ***

잠재변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된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이타적 동기	X26	1.000	.707	—	—
	X28	1.068	.756	.087	12.248 ***
	X29	.731	.522	.084	8.681 ***
	X30	.591	.361	.098	6.026 ***
	X32	1.106	.723	.093	11.895 ***
	X35	.686	.497	.083	8.270 ***
	X36	.610	.493	.074	8.203 ***
이기적 동기	X37	1.000	.373	—	—
	X38	1.970	.697	.339	5.806 ***
	X39	1.660	.597	.261	6.353 ***
	X41	1.937	.650	.336	5.761 ***
적합도 지수	RMR: .041, GFI: .898, AGFI: .872, NFI: .834, RFI: .805 IFI: .932, TLI: .919, CFI: .931, RMSEA: .042				

주: * p<0.05, ** p<0.01, *** p<0.00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총 43문항 중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X1, X6, X12, X17, X20, X22-1, X22-2, X25, X27, X31, X33, X34, X40, X42 14문항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4-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의 값이 네트워크변수(5%)를 제외하고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간주하지만, 표본의 수와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인부하량의 고

려 수준은 낮추어야 한다(김계수, 2010)¹⁴⁾.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29개의 요인들은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더불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fit index)¹⁵⁾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 적합도 지수인 χ^2 통계량과 함께 절대 적합도지수와 증분 적합도지수를 각각 적어도 한 개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이학식·임지훈, 201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χ^2 값 543.561, 자유도 346, p값 0.000으로 나타나 χ^2 의 p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원소간평균차이(RMR) 값은 0.041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이(RMSEA) 역시 0.042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초적합지수(GFI) 0.898, 표준적합지수(NFI) 0.834, 증대적합지수(IFI) 0.932, 비표준적합지수(TLI) 0.919, 비교적합지수(CFI) 0.931 등으로 적합하거나 기준에 근접하는 값을 보였다.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항목들은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독립변수 네트워크 4문항, 신뢰 7문항, 규

14) 김계수(2010)는 유의수준 0.05에서 표본의 크기에 따른 유의한 요인부하량 수준으로 표본 크기 350개 요인부하량 0.30, 표본 크기 250개 요인부하량 0.35, 표본크기 200개 요인부하량 0.40, 표본크기 150개 요인부하량 0.45, 표본크기 120개 요인부하량 0.50을 제시하고 있다.

15) 적합도 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ices), 증분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간결적합도지수(parsimony fit indices)로 분류할 수 있다. 절대적합도지수에는 χ^2 통계량(자유도, p값),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FI),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 있으며, 증분적합도지수에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rucker-Lewis Index), RFI(Rel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간결적합도지수에 PGFI(Parsimony Goodness-of-Fit Index), PNFI(Parsimony Normed Fit Index) 등이 있다.

범 4문항과 매개변수 동기 11문항, 종속변수 자원봉사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0.6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네트워크=0.608, 신뢰=0.794, 규범=0.607, 동기=0.835, 자원봉사=0.867과 같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6> 신뢰도 분석 결과

변 수		문 항 수	Cronbach α
독립변수	네트워크	4	.608
	신뢰	7	.794
	규범	4	.607
매개변수	동기	11	.835
종속변수	자원봉사	3	.867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X21, X23, X24)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설문항목의 나이와 소득수준을 단순화했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나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X21)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X23)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X23) Pearson χ^2 1.000, 유의확률 0.910,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시간·비용 투자(X24) Pearson χ^2 2.135, 유의확률 0.711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X21)는 Pearson χ^2 10.493이고, 유의확률 0.033으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성별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의 교차분석 결과

구 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					전체
		1	2	3	4	5	
남자	빈도	55	52	38	21	3	169
	성별 중 %	32.5%	30.8%	22.5%	12.4%	1.8%	100.0%
	전체 %	17.2%	16.3%	11.9%	6.6%	.9%	52.8%
여자	빈도	69	47	16	16	3	151
	성별 중 %	45.7%	31.1%	10.6%	10.6%	2.0%	100.0%
	전체 %	21.6%	14.7%	5.0%	5.0%	.9%	47.2%
전체	빈도	124	99	54	37	6	320
	성별 중 %	38.8%	30.9%	16.9%	11.6%	1.9%	100.0%
	전체 %	38.8%	30.9%	16.9%	11.6%	1.9%	100.0%

주: Pearson χ^2 10.493(p<0.05)

2)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

마찬가지로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X21) Pearson χ^2

13.036, 유의확률 0.111,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시간·비용 투자(X24) Pearson χ^2 5.705, 유의확률 0.680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X23)은 Pearson χ^2 20.043, 유의확률 0.010으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경제적 수준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 교차분석 결과

구 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전체
		1	2	3	4	5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빈도	33	43	22	11	2	111
	경제적수준 중 %	29.7%	38.7%	19.8%	9.9%	1.8%	100.0%
	전체 %	10.7%	14.0%	7.2%	3.6%	.7%	36.2%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빈도	39	39	21	16	1	116
	경제적수준 중 %	33.6%	33.6%	18.1%	13.8%	.9%	100.0%
	전체 %	12.7%	12.7%	6.8%	5.2%	.3%	37.8%
500만원이상	빈도	24	15	19	15	7	80
	경제적수준 중 %	30.0%	18.8%	23.8%	18.8%	8.8%	100.0%
	전체 %	7.8%	4.9%	6.2%	4.9%	2.3%	26.1%
전체	빈도	96	97	62	42	10	307
	경제적수준 중 %	31.3%	31.6%	20.2%	13.7%	3.3%	100.0%
	전체 %	31.3%	31.6%	20.2%	13.7%	3.3%	100.0%

주: Pearson χ^2 20.043(p<0.01)

4. 상관관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신뢰, 규범 변수 상호간의 관계는 네트워크와 규범의 관계를 제외하고, 네트워크와 신뢰($\gamma = 0.304$), 신뢰와 규범($\gamma = 0.206$)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 네트워크, 신뢰, 규범과 종속변수 자원봉사의 관계는 네트워크와 자원봉사($\gamma = 0.395$), 신뢰와 자원봉사($\gamma = 0.333$), 규범과 자원봉사($\gamma = 0.128$)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 네트워크, 신뢰, 규범과 매개변수 동기의 관계는 네트워크와 동기($\gamma = 0.214$), 신뢰와 동기($\gamma = 0.288$), 규범과 동기($\gamma = 0.406$)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자원봉사와 매개변수 동기($\gamma = 0.510$) 사이에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와 규범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와 동기는 0.510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이외에도 네트워크와 자원봉사 사이에 0.395, 규범과 동기 사이에 0.406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과 자원봉사 사이에는 0.129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9>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네트워크	신뢰	규범	자원봉사	동기
네트워크	1.00				
신뢰	.304**	1.00			
규범	.025	.206**	1.00		
자원봉사	.395**	.333**	.128*	1.00	
동기	.214**	.288**	.406**	.510**	1.00

주: * $p < 0.05$, ** $p < 0.01$

제3절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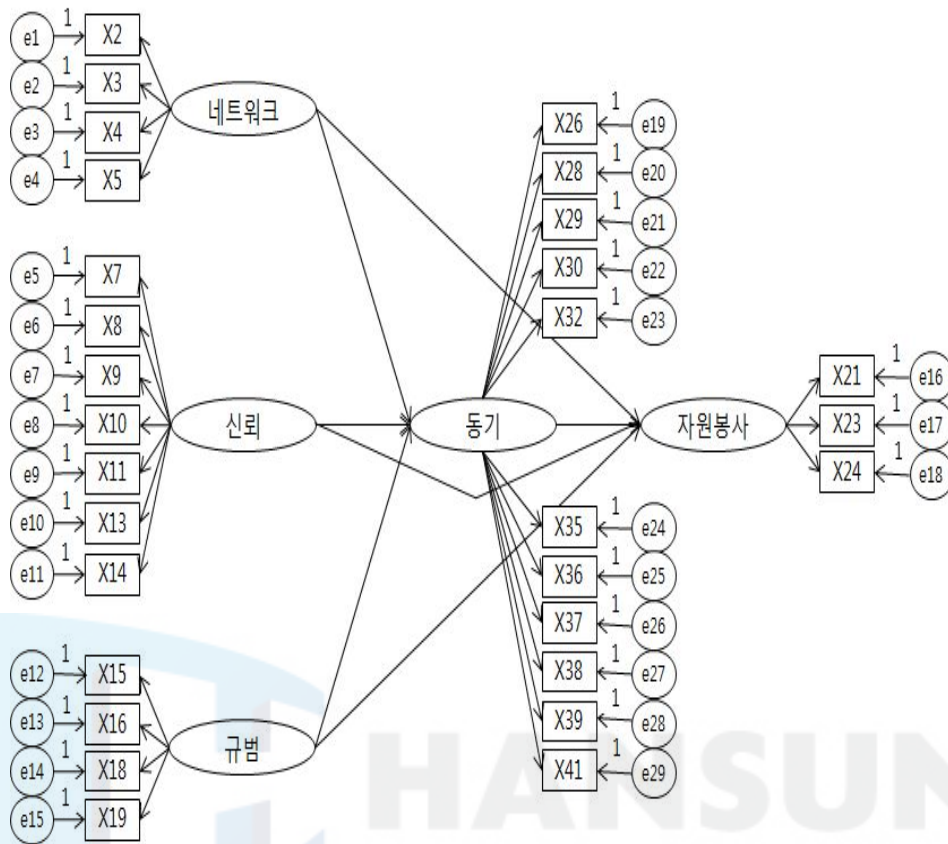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수 자원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1) 최초연구모형

제시된 최초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데이터 입력은 상관행렬을 계산하여 분석자료로 지정하는 행렬입력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spss에 코딩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모수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과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한 측정지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으로 구성된다. 최초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최초연구모형



앞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구조방정식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χ^2 값이 작고 p값이 클 때($p>0.05$)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χ^2 값이 크고 p값이 작을 때($p<0.05$)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수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적합도 지수들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최초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hi^2(p)$	df	RMR	RMSEA	GFI	AGFI	NFI	RFI	IFI	TLI	CFI
적합 지수	565.480 (.000)	350	.044	.044	.896	.870	.829	.801	.927	.914	.926
수용 기준	$p > .05$	—	$\leq .05$	$\leq .08$	$\geq .90$	$\geq .85$	$\geq .90$				
적합 여부	부적합	—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χ^2 값 565.480, 자유도 350, p 값 0.000으로 나타나 χ^2 의 p 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원소간평균차이(RMR) 값 0.044로 기준값 0.05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이(RMSEA)는 0.044로 0.08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기초적합지수(GFI) 0.896, 수정된적합지수(AGFI) 0.870, 표준적합지수(NFI) 0.829, 관계적합지수(RFI) 0.801, 증대적합지수(IFI) 0.927, 비표준적합지수(TLI) 0.914, 비교적합지수(CFI) 0.926 등으로 세 가지 지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값을 보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본 연구에서 구성한 최초연구모형은 기준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연구가설 일부는 유의수준 0.01 또는 0.001이하, t 값 1.96이상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관측변수 적합도를 통해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X^2(p < 0.01)$ 를 제외한 28개 관측변수 모두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4-11>과 같다.

<표 4-11> 최초연구모형의 경로추정 결과

구분	요인부하량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규범→동기	.976	.576	.166	5.866	***
신뢰→동기	.088	.073	.087	1.020	.308
네트워크→동기	.191	.234	.063	3.006	**
동기→자원봉사	.745	.571	.119	6.252	***
네트워크→자원봉사	.090	.084	2.776	.032	.974
신뢰→자원봉사	.268	.170	1.769	.151	.880
규범→자원봉사	-.269	-.121	.349	-.769	.442
네트워크→X2	.147	.164	.057	2.560	**
네트워크→X3	.330	.316	.069	4.773	***
네트워크→X4	.682	.622	.087	7.838	***
네트워크→X5	1.000	.841	-	-	-
신뢰→X7	.600	.393	.095	6.320	***
신뢰→X8	.639	.422	.094	6.770	***
신뢰→X9	1.143	.798	.102	11.223	***
신뢰→X10	1.136	.808	.091	12.435	***
신뢰→X11	.607	.373	.101	6.034	***
신뢰→X13	.808	.549	.083	9.784	***
신뢰→X14	1.000	.729	-	-	-
규범→X15	.979	.420	.184	5.320	***
규범→X16	1.116	.583	.172	6.482	***
규범→X18	.856	.442	.155	5.519	***
규범→X19	1.000	.572	-	-	-
자원봉사→X21	1.000	.807	-	-	-
자원봉사→X23	1.157	.895	.078	14.907	***
자원봉사→X24	1.093	.833	.078	14.079	***
동기→X26	1.000	.723	-	-	***
동기→X28	1.070	.767	.085	12.639	***
동기→X29	.745	.547	.082	9.141	***
동기→X30	.596	.373	.096	6.216	***
동기→X32	1.093	.722	.091	12.059	***

구분	요인부하량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동기→X35	.677	.499	.081	8.334	***
동기→X36	.622	.508	.073	8.486	***
동기→X37	.460	.371	.074	6.230	***
동기→X38	.762	.582	.081	9.445	***
동기→X39	.676	.522	.078	8.677	***
동기→X41	.756	.544	.084	9.039	***

주: * p<0.05, ** p<0.01, *** p<0.001

최초연구모형의 경로계수¹⁶⁾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범이 동기에 0.576($t=5.866$, $p<0.001$), 네트워크는 동기에 0.234($t=3.006$, $p<0.01$), 동기는 자원봉사에 0.571($t=6.252$, $p<0.001$)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규범이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별 관측변수들과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잠재변수에서는 지역사회활동 관심 정도(X4)가 0.622($t=7.838$, $p<0.001$), 지역사회활동 경험 정도(X5)가 0.841($p<0.001$), 신뢰 잠재변수에서는 지방의회신뢰(X9)가 0.798($t=11.223$, $p<0.001$), 자치단체신뢰(X10)가 0.808($t=12.435$, $p<0.001$), 규범 잠재변수에서는 불우이웃수용성(X16)이 0.583($t=6.482$, $p<0.001$), 자원봉사 잠재변수에서는 참여강도(X23)가 0.895($t=14.907$, $p<0.001$), 동기 잠재변수에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X28)이 0.767($t=12.639$, $p<0.001$), 이익과 무관한 자원봉사(X32)가 0.722($t=12.059$, $p<0.001$)의 값을 가져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정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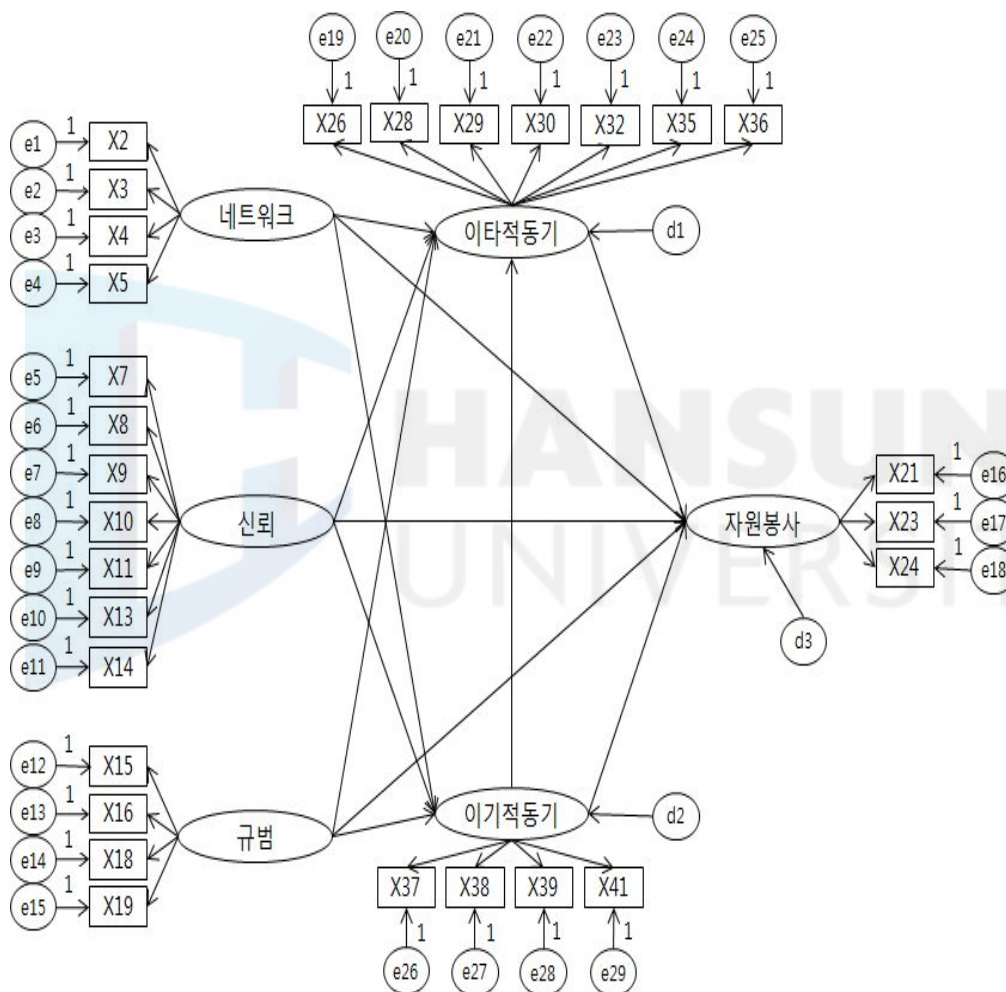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그림 4-1>과 같이 최초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 검토결과 기초적합지수(GFI), 표

16)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된(standardized) 값을 사용하였다.

준적합지수(NFI), 관계적합지수(RFI)의 적합도 지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하는 절대적합지수와 모형의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를 검토하였다. 최초연구모형을 수정한 수정연구모형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수정연구모형



최초연구모형과 수정연구모형의 차이점은 잠재변수 자원봉사동기가 이

타적동기와 이기적동기로 구분되었으며, 이기적동기에서 이타적동기로의 인과관계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표 4-12> 수정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hi^2(p)$	df	RMR	RMSEA	GFI	AGFI	NFI	RFI	IFI	TLI	CFI
적합 지수	520.598 (.000)	346	.041	.040	.903	.878	.841	.813	.940	.929	.939
수용 기준	$p>.05$	—	$\leq .05$	$\leq .08$	$\geq .90$	$\geq .85$	$\geq .90$				
적합 여부	부적합	—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χ^2 값 520.598 자유도 346, p 값 0.000으로 나타나 χ^2 의 p 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수정연구모형은 최초연구모형과 비교했을 때 자유도 4가 낮게 나타났으며, χ^2 분포표에 따라 유의수준 0.05에서 수정연구모형의 χ^2 값이 최초연구모형보다 9.49이상 작아 수정연구모형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⁷⁾.

또한, 원소간평균차이(RMR) 값 0.041로 기준값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이(RMSEA)는 0.040으로 0.08보다 작게 나타나 수용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기초적합지수(GFI) 0.903, 수정된적합지수(AGFI) 0.878, 표준적합지수(NFI) 0.841, 관계적합지수(RFI) 0.813, 증대적합지수(IFI) 0.940, 비표준적합지수(TLI) 0.929, 비교적합지수(CFI) 0.939 등으로 표준적합지수(NFI), 관계적합지수(RFI)가 기준에 미달하는 값을 보였지만, 최초연구모형과 비교했을 때 0.9에 보다 근접한 값을 나타냈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 역시 최초모형 보다 증가해 1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본 연구에서

17) χ^2 분포표상 d.f.=4, $\alpha=0.05$ 일 때의 χ^2 값은 9.49이다.

구성한 수정연구모형은 일정 수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가설검증

제시된 연구가설 일부는 유의수준 0.05 또는 0.001이하, t값 1.96이상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측변수 적합도를 통해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29개 관측변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음 <표4-13>과 같다.

<표 4-13> 수정연구모형의 경로추정 결과

구분	요인부하량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네트워크→이타적동기	.090	.110	.055	1.630	.103
신뢰→이타적동기	.014	.012	.074	.187	.851
규범→이타적동기	1.147	.499	.245	4.677	***
네트워크→이기적동기	.071	.194	.034	2.078	*
신뢰→이기적동기	.028	.053	.045	.626	.531
규범→이기적동기	.382	.372	.123	3.112	**
이기적동기→이타적동기	1.284	.574	.270	4.763	***
이타적동기→자원봉사	1.091	.779	.443	2.463	*
이기적동기→자원봉사	-.369	-.118	.628	-.588	.557
네트워크→자원봉사	.432	.377	.098	4.410	***
신뢰→자원봉사	.049	.029	.104	.467	.640
규범→자원봉사	-.594	-.184	.628	-.946	.344
네트워크→X2	.169	.185	.059	2.880	**
네트워크→X3	.355	.336	.069	5.126	***
네트워크→X4	.675	.613	.082	8.217	***

구분	요인부하량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네트워크→X5	1.000	.834	—	—	—
신뢰→X7	.602	.397	.092	6.545	***
신뢰→X8	.625	.416	.091	6.858	***
신뢰→X9	1.139	.805	.088	12.931	***
신뢰→X10	1.118	.801	.086	12.960	***
신뢰→X11	.615	.384	.097	6.346	***
신뢰→X13	.789	.543	.077	10.266	***
신뢰→X14	1.000	.728	—	—	—
규범→X15	1.027	.321	.233	4.416	***
규범→X16	1.694	.656	.304	5.580	***
규범→X18	.847	.326	.189	4.487	***
규범→X19	1.000	.422	—	—	—
자원봉사→X21	1.000	.858	—	—	—
자원봉사→X23	1.060	.886	.068	15.631	***
자원봉사→X24	.999	.826	.067	14.874	***
이타적동기→X26	1.000	.722	—	—	—
이타적동기→X28	1.037	.744	.085	12.267	***
이타적동기→X29	.739	.533	.082	9.038	***
이타적동기→X30	.583	.362	.097	6.004	***
이타적동기→X32	1.081	.718	.091	11.862	***
이타적동기→X35	.657	.483	.082	8.028	***
이타적동기→X36	.603	.495	.073	8.217	***
이기적동기→X37	1.000	.360	—	—	—
이기적동기→X38	1.985	.675	.362	5.485	***
이기적동기→X39	1.742	.603	.286	6.090	***
이기적동기→X41	2.076	.671	.379	5.477	***

주: * p<0.05, ** p<0.01, *** p<0.001

구체적으로는 규범이 이타적 동기에 0.499($t=4.677$, $p<0.001$), 네트워크가 이기적 동기에 0.194($t=2.078$, $p<0.05$), 규범이 이기적 동기에 0.372($t=3.122$, $p<0.001$),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0.574($t=4.763$, $p<0.001$), 이타적 동기가 자원봉사에 0.779($t=2.463$, $p<0.05$), 네트워크가 자원봉사에 0.377($t=4.410$, $p<0.001$) 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타적 동기와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변수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이외에도 관측변수들과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잠재변수에서는 지역사회활동 관심 정도(X4)가 0.613($t=8.217$, $p<0.001$), 지역사회활동 경험 정도(X5)가 0.834($p<0.001$), 신뢰 잠재변수에서는 지방의회신뢰(X9)가 0.805($t=12.931$, $p<0.001$), 자치단체신뢰(X10)가 0.801($t=12.960$, $p<0.001$), 규범 잠재변수에서는 불우이웃수용성(X16)이 0.656($t=5.580$, $p<0.001$), 자원봉사 잠재변수에서는 참여강도(X23)가 0.886($t=15.631$, $p<0.001$), 이타적 동기 잠재변수에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X28)이 0.744($t=12.267$, $p<0.001$), 의견교환이 즐거운 정도(X26)가 0.722, 이익과 무관한 자원봉사(X32)가 0.718($t=11.862$, $p<0.001$), 이기적 동기 잠재변수에서는 좋은 기분을 위한 자원봉사(X38)가 0.675($t=5.485$, $p<0.001$)의 값으로 큰 설명력을 보였다.

1) 사회적 자본과 동기의 관계

가설 1.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이타적 동기 및 이기적 동기로 구성된 자원봉사동기의 관계는 네트워크가 이기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규범이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분석결과, 네트워크가 이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이기적 동기에 경로계수 0.194($p < 0.05$) 만큼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분석결과 신뢰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분석결과 규범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각각 경로계수 0.499($p < 0.001$), 0.372($p < 0.01$) 만큼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기와 자원봉사의 관계

가설 2. 대학생의 자원봉사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성된 매개변수 자원봉사동기와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는 이타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의 분석결과 0.779($p < 0.05$)의 값을 보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의 분석결과 경로계수 -0.118($p = 0.557$)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자본의 직접효과

가설 3.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는 네트워크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분석결과, 네트워크가 자원봉사활동에 경로계수 0.377($p < 0.001$) 만큼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분석결과 신뢰는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분석결과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 동기의 매개효과

가설 4.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대학생의 네트워크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대학생의 신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에 대해 네트워크는 이기적 동기를 통해 부분매개하고, 규범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를 통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는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네트워크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는 가설의 분석결과 네트워크는 이기적 동기에 경로계수 0.194($p < 0.05$), 이기적 동기는 이타적 동기에 경로계수 0.574($p < 0.001$),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에 경로계수 0.779($p < 0.05$) 만큼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자원

봉사활동에 0.377($p<0.001$)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기가 네트워크와 자원봉사활동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신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는 가설의 분석결과 신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와 자원봉사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기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는 가설의 검토결과 규범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각각 0.499($p<0.001$), 0.372($p<0.01$) 만큼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적 동기는 이타적 동기에 경로계수 0.574($p<0.001$),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경로계수 0.779($p<0.05$) 만큼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규범과 자원봉사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동기가 규범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 <표4-1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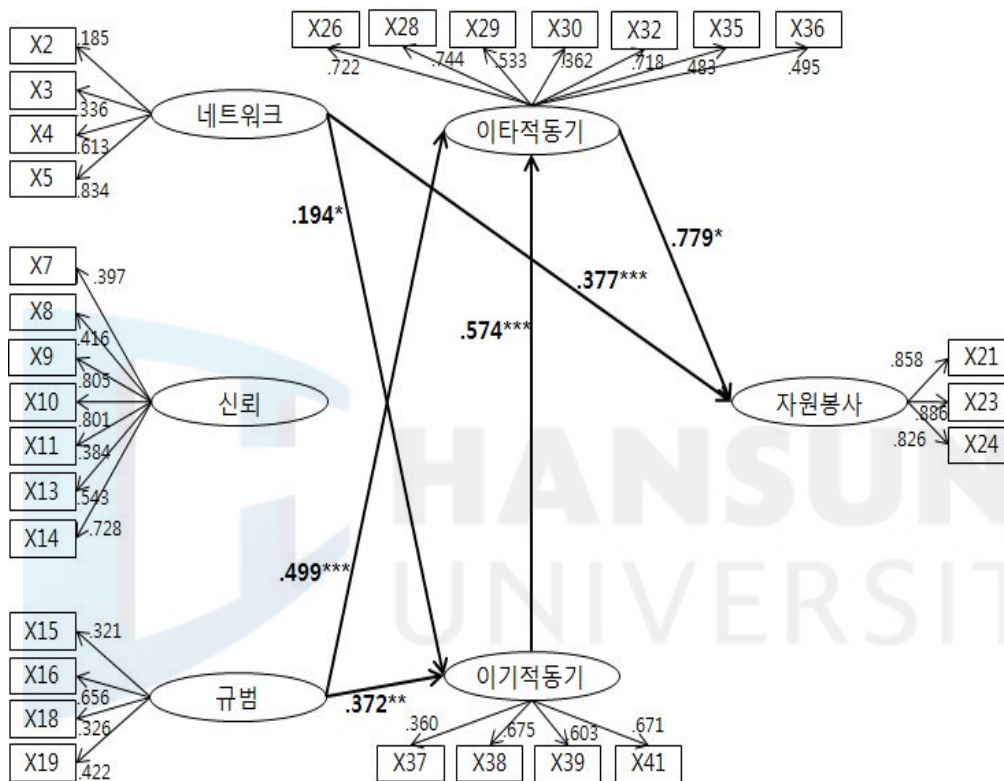
<표 4-14>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계수 방향
가설 1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
가설 1-2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1-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2	대학생의 자원봉사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2-2	대학생의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3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3-2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3-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4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대학생의 네트워크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일부 채택	+
가설 4-2	대학생의 신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
가설 4-3	대학생의 호혜적 규범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동기는 그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일부 채택	+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가설검증결과 대학생의 신뢰는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대학생의 네트워크는 이기적 동기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동기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범은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동기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의 경로계수를 연구모형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구조모형의 경로치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5) 효과의 분해

앞서 살펴본 가설검증과 경로계수 값은 모두 직접효과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가 주요 변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에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변수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전체효과 크기, 유의성을 분석했다. 직접효과는 표준화 계수와 동일하며, 간접효과와 전체효과의 크기 및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원자료의 한정된 표본크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료에 무한히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하여 대표본과 비슷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김대업, 2008).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과와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 반복횟수를 2000번으로 설정했다. 전체·직접·간접효과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표 4-15> 효과분해 결과

구 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1. 네트워크→ 이타적동기	.221*	.110	.111*
2. 신뢰→ 이타적동기	.042	.012	.031
3. 규범→ 이타적동기	.713***	.499***	.213***
4. 네트워크→이기적동기	.194*	.194*	—
5. 신뢰→이기적동기	.053	.053	—
6. 규범→이기적동기	.372**	.372**	—
7. 이기적동기→이타적동기	.574**	.574***	—
8. 이타적동기→자원봉사활동	.779*	.779*	—
9. 이기적동기→자원봉사활동	.329**	-.118	.447*
10. 네트워크→자원봉사활동	.526***	.377***	.149*
11. 신뢰→자원봉사활동	.056	.029	.027
12. 규범→자원봉사활동	.327**	-.184	.511**

주: * $p<0.05$, ** $p<0.01$, *** $p<0.001$

효과분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네트워크가 이타적 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기적 동기 경로를 통해 0.111 ($p<0.05$)의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종합했을 때 0.221($p<0.05$)의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범은 이타적 동기에 0.499($p<0.001$)로 직접효과를 가지며, 이기적 동기를 통해서도 0.213($p<0.001$)의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종합했을 때, 규범은 이타적 동기에 0.713 ($p<0.001$)의 전체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네트워크는 이기적 동기에 간접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0.194 ($p<0.05$)의 직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규범은 이기적 동기에 간접효과를 갖지 않으며, 0.372($p<0.01$)의 직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기적 동기는 이타적 동기에 간접효과를 갖지 않으며, 유의수준이 상이한 0.574의 직접효과($p<0.001$)와 전체효과($p<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간접효과를 갖지 않으며, 0.779($p<0.05$)의 직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이타적 동기 경로를 거쳐 0.447($p<0.05$)의 간접효과를 갖지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직·간접효과를 종합했을 때,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0.329($p<0.05$)의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네트워크는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의 경로를 거쳐 자원봉사활동에 0.149($p<0.05$)의 간접효과를 가지며, 0.377($p<0.001$)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효과를 종합했을 때,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0.526($p<0.001$)의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갖지 않지만,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통해 0.511($p<0.01$)의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간접효과를 종합했을 때 0.327($p<0.01$)의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 변수와 이기적 동

기 및 이타적 동기로 이루어진 매개변수의 관계에서 규범이 이타적 동기(0.713)와 이기적 동기(372)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전체효과의 크기는 이타적 동기(0.779), 네트워크(0.526), 이기적 동기(0.329), 규범(0.327)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상태, 자원봉사의 동기, 자원봉사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한 분석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1) 독립변수

기초통계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상당수의 측정 지표에 있어서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였다. 먼저 네트워크 변수에서는 모임참여 정도(3.016)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였다. 특히, 지역사회활동 경험 정도(2.128)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동일한 설문을 중고령층에게 실시한 김영옥(2011)의 연구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전체 대학생의 상태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대학생들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거치는 동안 학교 내에 한정되어 있던 네트워크가 대학교육을 거치면서 아직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 인적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증가했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뢰 변수는 가족 간 신뢰도(4.212)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변수에서 모두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여 가족외의 이웃, 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인 신뢰도 측정에 동일한 측정지표를 사용한 김영옥(2011)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대인신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자치단체·사회단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됐을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선 네트워크, 신뢰 변수와 달리 규범 변수는 혐오시설수용성(2.455)을 제외한 4개의 측정 변수에서 모두 보통(3.0)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며 문화차이수용성(3.707)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측정지표의 구성을 보면, 외국인수용성·불우이웃수용성·이전수용성·문화차이수용성은 모두 대인관계에서의 수용성을 의미하는 반면, 혐오시설수용성은 대부분 개인과 공공기관의 관계에서 수용여부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의 수용성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사익의 양보 또는 침해를 요구할 때 쉽게 수용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주요 규범 인식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구체적인 물질적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체감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매개변수

매개변수 자원봉사동기는 총 18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이타적 동기 12문항과 이기적 동기 6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타적 동기에 관한 측정문항 중 업무수행으로 인한 만족감(3.941)이 가장 큰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사회를 위한 희생 준비 정도(2.536)는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동기 중 만족감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사회를 위해 활동하기에는 아직 많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기적 동기에 관한 측정문항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실질적 성과 필요성 인식 정도(3.241)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 필요성 인식 정도(2.750)는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3) 종속변수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은 총 6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참여빈도와 활동기간에 대해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월 평균 자원봉사 시간, 자원봉사활동 전체경력과 현재 활동하는 기관에서 경력 세 가지 모두 표준편차가 각각 8.5975, 10.8775, 4.270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의 차이와 참여하는 대학생 간의 차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한 참여빈도(2.054) 및 참여강도와 관련한 적극적 참여 여부(2.257), 시간과 비용 투자 여부(2.433)는 모두 보통(3.0) 이하의 평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학생이 된 이후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 취업이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기업체의 임용시험 시 사회공헌활동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원봉사의 성과나 모집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구체

적인 성과나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성을 갖춘 봉사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자 활용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교차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나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정도의 교차분석결과, 나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X21), 나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X23), 나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시간·비용 투자(X24)에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X21)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X23)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군복무라는 특수한 경험을 고려해봤을 때, 제대이후 자원봉사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나눔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학비나 생활비의 마련을 위해 여유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으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하게 비록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나 시간·비용 투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들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참여빈도나 시간·비용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구조모형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단순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속에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조모형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변수 중 네트워크는 이기적 동기에 규범은 이기적·이타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종속 변수 자원봉사활동에는 신뢰를 제외한 네트워크, 규범,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동기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자원봉사의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중 이기적 동기(0.194)에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가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 결과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가 넓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며,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자원봉사 업무의 구체적인 성과를 지향하거나 또 다른 경험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비록 자원봉사동기의 초점이 비록 자원봉사자 자신에게 있지만 사회전체적인 유효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란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는 자원봉사의 동기로서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의 신뢰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들에서 낮은 인식을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는 신뢰가 이타성

과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타인, 집단 및 공공조직들에 대하여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예측가능한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유자원(시간, 금전)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의 이타적·이기적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범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형성되어 있는 공유된 가치로서 규범을 통해 서로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규범은 이타적 동기(0.713)와 이기적 동기(0.372)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혜성이 이타성과 자아실현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규범인식이 혐오시설수용성을 제외한 측정변수에서 모두 보통(3.0)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규범 인식이 높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인식하기 때문에 함께 공존해야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을 인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대상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발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성된 자원봉사동기 중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0.779)을 미치며, 이기적 동기는 이타적 동기 경로를 거쳐 간접효과(0.447)와 전체효과(0.32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기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지만,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력을 갖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자원봉사동기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할 때 중요한 초점은 개인이 자원봉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그 선택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그 밖의 타인, 조직, 국가인가 하는 것이다. 이기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을지라도 봉사자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용

이 증가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를 시작한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는 아니지만, 물질적·비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학생들이 이기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타적 동기가 발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각기 다른 다양한 구성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성과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동기 변수를 간과한 채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인과관계 사이에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 신뢰 변수는 자원봉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효과(0.377),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통한 간접효과(0.149) 및 전체효과(0.526)를 갖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직접효과는 갖지 않았으나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를 통해 간접효과(0.511)와 전체효과(0.32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김병록(2011)의 연구와 비공식적·공식적 상호작용과 지지네트워크 변수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현기(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 변수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학생들의 신뢰인식이 가족 간 신뢰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

로 이슈가 된 공정한(justice) 사회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비록 신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높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네트워크 변수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동기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형성된 네트워크는 대학생에게 자원봉사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지지에 의해 더욱 동기부여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확장은 또 다른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효용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네트워크가 확충되기 위해 공급자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변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 교과목의 편성뿐만 아니라 수업방법에 있어서도 교수가 중심이 된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진행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의사소통으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규범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피해가 예측되지 않고, 대인과의 관계나 차이를 수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가 높으며, 이러한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인식의 제고방법으로 앞선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간의 인과관계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가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김영옥(2011)의 연구를 고려했을 때, 대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충은 집단의 확장 및 집단 내 규범의 확립을 가져올 수 있다.

제5장 결 론

제1절 논의의 요약과 함의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인과관계와 자원봉사동기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단순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하거나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한계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동기,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수의 측정지표에 있어서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였다. 먼저 네트워크 변수에서 모임참여 정도(3.016)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설문을 중고령층에게 실시한 김영옥(2011)의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 특히 지역사회활동 경험 정도(2.128)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신뢰 변수는 가족 간 신뢰도(4.212)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변수에서 모두 보통(3.0)이하의 값을 보여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인 신뢰도를 측정한 김영옥(2011)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네트워크, 신뢰 변수와 달리 규범 변수는 혐오시설수용성(2.455)을 제외한 4개의 측정 변수에서 모두 보통(3.0)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며 문화차이수용성(3.707)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매개변수 자원봉사동기 중 이타적 동기에 관한 측정문항에서 업무수행

으로 인한 만족감(3.941)이 가장 큰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사회를 위한 희생 준비 정도(2.536)는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기적 동기에 관한 측정문항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실질적 성과 필요성 인식 정도(3.241)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 필요성 인식 정도(2.750)는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은 등간척도를 활용한 참여빈도(2.054) 및 참여강도와 관련한 적극적 참여 여부(2.257), 시간과 비용 투자 여부(2.433)가 모두 보통(3.0)이하의 평균을 나타냈다.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X21)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적극성(X23)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는 자원봉사의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중 이기적 동기(0.194)에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가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신뢰는 자원봉사의 동기로서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규범이 이타적 동기(0.713)와 이기적 동기(0.372)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자원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성된 자원봉사동기 중 이타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0.779)을 미치며, 이기적 동기는 이타적 동기 경로를 거쳐 간접효과(0.447)와 전체효과(0.32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기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지만,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력을 갖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신뢰 변수는

자원봉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효과(0.37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김병록(2011)의 연구와 비공식적·공식적 상호작용 및 지지네트워크 변수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현기(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는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통한 간접효과(0.149) 및 전체효과(0.526)를 가져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마지막으로, 규범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직접효과는 갖지 않았으나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변수를 통해 간접효과(0.511)와 전체효과(0.32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제고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네트워크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교육 시스템 상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학교육은 과거부터 실시되어 온 전통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과 취업에 초점을 둔 교육방식이 충돌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본연의 목적에 비추었을 때,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주위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발표하고, 이를 소재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제도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의 수업이나 평가방식에 관하여 이와 관련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학교의 학칙에 학생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협력 및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인적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의 확장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경력의 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특이한 점으로 자원봉사자의 동기 중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의 이기적 동기를 자극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의 확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시간 및 마일리지 적립으로 공공시설 입장료, 가맹점 물품 가격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의 평가지표에는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임용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효과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과 같은 이타심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원봉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임용 전 겪게됨으로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중 신뢰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 관심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에 국한된 결과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범위를 국가 안보와 같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정보의 탐색비용과 같은 거래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규범인식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규범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형성되어 있는 공유된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인식하기 때문에 함께 공존해야하는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높은 규범인식을 발현시켜 자원봉사활동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신규 프로그램 운용 시 기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봉사자의 홍보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외부의 비자원봉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원봉사정신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점 이외에 본 연구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제2절 연구의 한계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 4개 대학으로 한정하여 대표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고 4개의 대학만을 선정했지만 이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광범위한 표본을 확보하여 전국을 포괄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동기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봉사자 개인은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내·외부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 자원봉사활동 현황, 자원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변수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A. 단행본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학현사.
- 김범수 외 (2004), 『자원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영호 (2006),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한구 외 (1997), 『자원봉사 실무론』, 서울: 백산출판사.
- 나영선 · 이재열 · 한준상 · 이경묵 · 한성안 (2005),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기철 (2007), 『자원봉사전』, 서울: 나남출판사.
- 류석춘 외 (2008), 『한국의 사회자본』, 서울: 양서원.
- 유석춘 · 장미혜 · 정병은 · 배 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이학식 · 임지훈 (201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6.0』, 경기도: 범문사.
- 장휘숙 (2001),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기환 · 심재만 · 최경은 (2006),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휘일 (199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천과 활성화 방안』,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
- 최일섭 (1995), 『한국사회복지기관에 있어서의 자원동원 및 개발』, 서울:

한국복지재단.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1997), 『자원봉사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3), 『자원봉사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B. 논 문

강승애 · 서세훈 · 조상우 (2010), 「장애인 스포츠행사 참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5)』, 한국여성체육학회, 125-134.

강철희 (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3)』, 한국사회복지학회, 5-32.

곽현근 · 유현숙 (2011),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민조직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5(2)』, 한국공공관리학회, 61-91.

구병주 (2011),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구혜영 (2006), 「공공조직 자원봉사자의 활동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12-137.

권영숙 (2011),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_____. 이영민 (2011),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 『지방행정연구 25(1)』, 한국지방행정연구회, 137-156.

- 김남선·김만희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지 10(2)』,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1-30.
- 김덕주 (2009),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4(1)』,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123-146.
- 김동원 (2005), 「자원봉사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동기」, 『한국행정학보 39(2)』, 한국행정학회, 159-180.
- 김상진·한진수 (2006), 「호텔의 사회자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5(2)』,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41-63.
- 김성경 (2009), 「사회적 자본 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317-337.
- 김성태 (2012), 「관광특구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희·김유경 (2010), 「청소년의 자원봉사 동기 요인과 가족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1-38.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6)』, 한국정치학회, 67-88.
- 김영옥 (2011),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호 (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한국청소년학회, 17-41.
- 김 욱. (2011). 「대학생의 자원봉사 교육경험과 자원봉사의 중요성 인식 및참여태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3)』, 한국청소년학회, 301-329.
- _____·송미영 (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 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한국청소년학회, 329-359.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한국행정학회, 27-51.
- _____ (2009), 「사회자본론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적 함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한국행정학회, 33-52.
- _____ · 안희정(2009),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분석: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경인행정학회, 197-216.
- 김현진 (2011),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 이동수 (2011),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과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한국행정학회, 243-270.
- 김효선 · 윤소영. (2011). 「연령통합적 여가 측면에서 본 자원봉사활동의 연령별 실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85-101.
- 남궁근 (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 13(4)』,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97-325.
- 류나미 · 최은희 (2007), 「대학생이 경험하는 봉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한국청소년학회, 1-26.
- 문성호 · 문호영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01-120.
- 문영주 (2011),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적 자본 척도 구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81-407.

- 문유석 · 허용훈 · 김형식 (2009), 「경찰 사회자본과 직무만족: 경찰관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한국공안행정학회, 101-135.
- _____ (2010), 「경찰조직 내의 신뢰가 경찰관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 한국공안행정학회 73-104.
- 박민정 (2006), 「의료정책변화의 시대추구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0(2)』, 한국행정학회, 195-218.
- 박봉규 · 조재완 (2004), 「자원봉사자치 참여동기가 만족과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18(3)』, 대한관광경영학회, 143-157.
- 박소연 · 김진경 · 이택영 (2011),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한국콘텐츠학회, 376-384.
- 박숙미 (2002), 「신뢰구조의 동학과 사회자본의 형성: 위험생산-회피구조의 발생론적 접근에 기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미 (2000),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지적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2(1)』,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171-203.
- 박시사 · 노경국 · 이유라 (2008), 「축제 자원봉사자의 참가동기와 참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제64차 학술심포지엄』, 한국관광학회, 374-385.
- 박찬웅 (1998), 「경제위기와 사회적 신뢰의 위기」, 『사회비평 19』, 나남출판사, 201-207.
- _____ (2000),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79-110.
-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5-44.
- _____. 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한국행정학회 175-196.
- 배상욱·윤한성 (2010), 「사회자본이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 차원들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접근」, 『한국유통연구 15(1)』, 한국유통학회 73-101.
- 서순탁 (2001), 「사회자본 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서진완·박희봉 (2003), 「인터넷 활용과 사회자본: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1), 27-49.
- 송인자 (2003), 「초, 중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병일 (2009), 「청소년단체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염종호 (2011), 「공공조직의 사회자본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효근·김욱 (200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사회복지정책 35』,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97-327.
- 우정자. (2011),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3), 119-147.
- 유석춘·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87-125.
- 유용식·손호중 (2009),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8(2)』, 한국비영리학회, 27-57.
- 이강현·정진경 (2006), 「자원봉사조직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인정·

- 보상 시행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한국비영리학회, 101-135.
- 이경근 (2010), 「기대이론을 이용한 노조참여행동 모델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3(1)』,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61-78.
- 이경태 (2011),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OECD회원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숙 (2011),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계가치관조사자료(World Values Survey)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민창 (2008), 「자원봉사 이론의 최근 동향: 정책연구의 관점」,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3)』, 한국지방정부학회, 75-94.
- 이성록 (2001),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숙중 · 김희경 · 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1)』, 한국행정학회, 149-170.
- _____. · 최준규 · 유희정 (2008), 「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종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1-132.
- 이순자 (200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1)』, 사회복지지원학회, 173-190.
- 이인자 · 한세희 · 이희선 (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한국정책학회, 179-213.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 사

- 회과학원, 65-93.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2)』, 한국사회학회, 11-35.
- _____ (2005),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시장적 관계 모형」, 『사회와 이론 10』, 한국이론사회학회, 213-262.
- 이종모 (20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회자본이 직무성장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창기 (2004), 「사회자본형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협력증진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서울행정학회, 435-448.
- 이현기 (2010),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0』, 한국노인복지학회 263-290.
- 이혜숙 (2003),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2)』, 한국간호교육학회, 276-287.
-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학빈·서명원 (1999), 「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한 ERP구현의 동기배이션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경영정보학회, 599-605.
- 임현균 (2004), 「시민단체 리더십과 조직사회자본간 관계 연구: 대전광역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덕희·이명옥·양점도 (2011),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한국청소년학회, 121-146.
- 장유미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한국사회복지학회, 261-289.

- 장진희 (2012),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남익 (2009),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인근 (2008),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관련된 사회자본 형성」, 전북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희일 (1991) 「한국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
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유미 (2010), 「자원봉사활동 지속과 중단요인 인식유형에 대한 Q방법론
연구: 경북지역 자원봉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49(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9-157.
- 최윤정 (2008), 「대중 매체 이용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52(3)』,
한국언론학회, 374-395.
- 최은숙 (2006), 「인정보상 요인이 자원봉사행동의 지속도와 강도에 미치
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
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6)』, 한국사회
학회 97-132.
- 최해봉 (2012),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
울특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 하성규·박기덕 (2011),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서울 아파트단지와 여주 농촌 마을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
연구 12(4)』, 대한지방자치학회, 133-153.
- 한상미 (2007a),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사회자본 유형」, 『한국

- 비영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비영리학회, 43-68.
- _____ (2007b),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7c),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유형 연구」, 『사회복지정책 31』,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11-237.
- 허성호·정태연 (2011), 「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7(3)』, 한국심리학회, 284-304.
- 홍기원 (2011), 「예술계 전공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특징 분석」, 『예술교육연구 9(1)』, 한국예술교육학회, 161-182.
- 홍연숙 (2008), 「제주지역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 실태와 미래 지속의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0(2)』,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28.
- 홍은진 (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한국비영리학회, 33-71.
- 홍현미라 (2005),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명희 (2009),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과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계연구: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A. Books

- Arrow, K. J. (1974), *The Limits of Organization*. New York: W. W. Norton & Co.
- Baldock C. V. (1990), *Volunteers in Welfare*, Sydney: Allen and Unwin Australia Pty Ltd..
- Blau, P.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onnewitz, P. (1997),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문경자 역, 서울: 동문선.
- Brudney J. L. (1990), *Fostering Volunteer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 Drucker, P. F. (1990), *Manag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York, Harper Collins
- Fisher, J. A., & Cole, K. M. (1993),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Volunteer Program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Ellis, S. J., & Noyes, K. H. (1990), *By The People: A History of Americans as Voluntee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97),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Magazine.
- Glasser, R. S. (1986), *The economics of Nonprofit Enterpris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Hechter, M. (1987), *Principles of group solidar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es, E., & Ross-Ackerman, S. (1986), *The nonprofit enterprise in market economics*. London: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nn, P., & Smith, D. J. (1991), *The 1991 National Survey of Voluntary Activity in the UK, Berkhamsted: The Volunteer Centre UK*.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 Rothstein, B. (2005). *Social Traps and the Problem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amon, L. M., & Anheier, H. (1992), *In search of the nonprofit sector: Questions & definitions*, Baltimor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 Sheard, J. (1995), *From lady boundtiful to active citizen. Justin Davis Smith, Colin Rochester & Rodney Hedley. An Introduction To The Voluntary Sector*. London: Routledge.
- Titmuss, R. M. (2002), *The gift relationship. from human blood to*

social polic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Zimmeck, Meta. (2009). *The Compact Code of Good Practice on Volunteering: Capacity for change: A review*.

B. Articles

Adler, P. S., & Kwon, S. W.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Baum, F., Modra, C., Bush, R., Cox, E., Cooke, R. & Potter, R. (1999),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 An Adelaide study. *Australian Journal on Volunteering*, 4(1).

Cohen, J. L. (1997), American Civil Society Talk. College Park, MD: National Commission on Civic Renewal, *Working Paper* #6.

Coleman, J. S. (1988),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1.

Goss, K. A. (1999), Volunteering and the Long Civic Gener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4), 378-415.

Gächter, S., Herrmann, B. & Thoni, C. (2004), trust, Voluntary Cooperation,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5, 505-531.

Lin, N. (1999). Social Networks And Social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7.

Murnighan, J., Keith, Jae Wook Kim, Richard Metzger. (1993), The Volunteer Dilemma.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4),

515-538.

- Naphapiet, C.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5.
- Newtow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 Scientist*, 40(5), 575-586.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rdern Sociology. *A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_____. & Sensenbrenner, J.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 Journal of Sociology*.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 Serageldin, I., & Grootaert, C.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view. In: Dasgupta, P. and Serageldin, I.,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40-58.
- Siber, E., & Tippet, J. S. (1965), Self-esteem: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16, 1017-1071.
- Smith, D. H.(1975). Voluntary Action and Voluntary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 pp.247-270.
- _____. (1981),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0(1): 21-36.
- Tschirhart, M., Mesch, D., Perry, L. J., Miller, T. K., & Lee, G. (2001), Stipended volunteers: Their goals, experiences, satisfaction, and likelihood of future servic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422-443.

Winter, I. (2000), Towards a theorized understanding of family life and social capital.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Working Paper, 21.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Zucker, L.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충우입니다.

본 설문지는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재 상황 및 인식을 조사하여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의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제시된 응답요령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은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설문의 내용에 빠짐없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연 구 자 : 박충우(이메일: hdi6684@hanmail.net) / 연락처: 011-769-3603

지도교수 : 권해수(이메일: hskwon@hansung.ac.kr)

I.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번호에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 귀하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인간관계가 수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1) 25명이하 | 2) 26 ~ 50명 | 3) 51 ~ 75명 |
| 4) 76 ~ 100명 | 5) 101명 이상 | |

2. 귀하가 서로의 고민꺼리를 거부감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보통이다 4) 많다 5) 매우 많다

3. 귀하는 각종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많이 참여한다 5) 매우 많이 참여한다

4.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1) 전혀 없다 | 2) 별로 없다 | 3) 보통이다 |
| 4) 많다 | 5) 매우 많다 | |

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활동 경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1) 전혀 없다 | 2) 별로 없다 | 3) 보통이다 |
| 4) 많다 | 5) 매우 많다 | |

II.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6. 귀하는 가족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7. 귀하는 주변 이웃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8. 귀하는 주변 상인들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9. 귀하는 지방의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10. 귀하는 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11. 귀하는 학교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12. 귀하는 종교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13. 귀하는 사회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14. 귀하는 지역사회조직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신뢰한다

III.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자본 중 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5. 귀하는 주변 외국인과의 관계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1)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2)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5) 매우 잘 받아 들인다

16. 귀하는 주변 불우이웃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입니까?

- 1) 전혀 부정적이다 2)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17. 귀하의 거주지 주변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 1) 전혀 수용할 수 없다
- 2)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수용하는 편이다
- 5)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8. 귀하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발생한 견해 차이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
- 2) 대체로 수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수용하는 편이다
- 5)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9. 귀하는 다른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
- 2) 대체로 수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수용하는 편이다
- 5)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IV. 다음 문항들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
에 직접 기입하거나,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20. 귀하는 월 평균,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십니까?

(약 시간)

21.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1) 전혀 참여하지 않음
- 2)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비교적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 5) 매우 자주 참여한다

22. 자원봉사활동경력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자원봉사활동 전체경력 (약 년 개월)
- 현재 기관에서의 경력 (약 년 개월)

23.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4.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V. 다음 문항들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 은 보람 있는 일이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견교환이 즐겁다.					
3	자원봉사 프로그램 만드는 일 에 참여할만한 가치가 있다.					
4	의미 있는 자원봉사는 나에 게 중요하다.					
5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 도리 라고 생각한다.					
6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면 기 분이 좋다.					
7	담당한 업무를 잘 수행한 경 우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					
8	개인적 이득과 무관하게 자 원봉사를 한다.					
9	개인적인 성공보다 사회에 대한 공헌이 보다 큰 의미가 있다.					
10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 을 감수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11	높은 수입을 추구하는 것보 다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내 이익보다 나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3	내가 맡은 자원봉사업무를 잘 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 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나 자신이 스스로 보다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자원 봉사를 한다.					
15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원봉사업무에 구체적인 진 전 내지 결실을 보기 원한 다.					
16	내가 하는 봉사에 대해 경제 적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현재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 자원 봉사활동을 한다.					
18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 다는 표시로 증서 또는 감사 패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134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oluntary Activity

Park, Chung-Woo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oluntary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 the social complexity increases, there are some objects and businesses unsolved which the nation has to achieve with its material resources or human resources. It is the social capitals that supplement the insufficient nation's materi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Social capital enables the nation to increase the social efficacy by bringing positive effects like the diffus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cost, legitimacy of the policy enforcement, and saving of monitoring expense. Moreover,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 development, there exists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rban poor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blind spots of the welfare service, and aging farming population. In solving this problem, not only the role of private

welfare services is expanded but more people started to get engage in volunteering in order to overcome the poor financial condition of the social welfare field. Volunteer enables the nation and the private welfare agency to decrease the financial burden and supply various welfare services. Also, people can reinforce self-esteem and broaden their scope by volunteering. Voluntary activities are especially very important to the university students because it is the first step to form social capitals and this is the transitional period linking the obligatory voluntary activity to the spontaneous one.

From this perspective, this dissertation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consisting of the network, trust, and norms of reciprocity and voluntary activities. Furthermore, I will analyze the mediator effects of voluntary motivation. Thu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social capitals, voluntary motivations, and voluntary activities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basic statistic analysis show that the cognition level on social capitals, voluntary motivations, voluntary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are less than 3.0 in most of the measurement indicators. First of all, all variables except the 'meeting participation extent(3.016)' showed the value less than 3.0 in the network variable. Especially, the 'experience level of local society activity(2.128)' was the lowest, and the trust variable except the 'reliability between family members(4.212)' among the total of 9 variables showed that it has the value less than 3.0, which is very low. Unlike the network and trust variable, the norm variable showed the value more than 3.0 in 4 measurement variables except the 'unwanted public facility receptivity(2.455)', and 'the cultural difference receptivity(3.707)' showed the highest value. In the measurement item relating to the

altruistic motivation among the voluntary motivation as a intervening variable, the 'satisfaction due to performance of business(3.941)' showed the highest value, whereas the 'preparation level of sacrifice for the society(2.536)' indicated the lowest value. In the measurement item relating to the selfish motivation, the 'recognition level on a necessity of real performance of extent through the voluntary activity(3.241)' showed the highest value, whereas the 'recognition level on necessity of economical compensation about the voluntary activity(2.750)' indicated the lowest value. Using interval scale while having voluntary activities as the dependent variable gave values less than 3.0 for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2.054)', 'whether active participation relating the strength of participation(2.257)', and 'whether or not to invest time and cost(2.433)'.

The results of cross-tabs 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ages. But the difference of 'participating frequency of voluntary activity(X23)' according to the sex and 'positiveness of participation of voluntary activity(X23)' according to the wealth was significant.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social capitals, voluntary motivations, voluntary activities we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net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selfish motivation(0.194), whereas the trust doesn't have any impact on altruistic motivation and selfish motivation. On the other hand, the norm has positive effect(+) on all of altruistic motivation(0.713) and selfish motivation(0.372).

Secon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of the voluntary motivations and voluntary activities showed that an altruistic motivation of the voluntary motivation has a direct effect(0.779) on voluntary activities and a selfish motivation has a direct effect(0.779) and total effect(0.329) on voluntary activities through altruistic

motivation. Also, the selfish motivation does not directly influence the voluntary activities, but it is unusual that the selfish motivation affects to the voluntary activities through the altruistic motivation.

Thir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of the social capitals and voluntary activities showed that the trust has neither a direct nor an indirect effect on voluntary activity. The network has a direct effect(0.377) and an indirect effect(0.149) through altruistic motivation and selfish motivation, so the network turned out to be a mediator effect on the voluntary activity. Also, the norm doesn't have a direct effect, but it has an indirect effect(0.511) and a total effect(0.327) through altruistic motivation and selfish motivation to play a complete mediator rol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following recommendations on enhancing social capital and vitalizing voluntary activities. First, we need expand not only the networks of university students but also the programs in which the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participate. Also,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o cooperating and participating program for this activating can be considered.

Second, when considering the research result that the selfish motivation affect to the altruistic motivation, the expansion of the method to participate in voluntary activities by stimulating the selfish motivations of the university students needs to be considere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current public facilities admission fee and affiliated store discount service according to the voluntary activity point. Also, we should consider making all public institutions adopt a new employ policy requiring the voluntary hour of certain level obligatorily.

Third, the trust among the social capital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s very low. In order to improve it, we should make the society more

transparent and equitable. Most of all, unless the range of information openness of the public institution pertains to the important issues like the national security, we should tighten up the information openness policy in which all public institutions are forced to open the information and are not permitted to close arbitrarily.

Fourth, we need to find ways to generate the cognition of high norm amongst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n connect it with the voluntary activities. For example, in operating a new service program, we should promote the voluntary activities by utilizing ways to take an advantage of existing volunteers and recruit new volunteers through positive promotional activities. Also, we need to inspire the students to volunteer by sharing the performances of the voluntary activities with the external non-volunteers.

In spite of these implications of research, the following things can be pointed out as the limits of this study. First, it should consider the problem of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in the way that the samples of the research were restricted to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econd, we adopted the social capitals and voluntary motivation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e need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 follow-up studies consideri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a tendency of volunteers' personal or an organizational factors.

Key word : Social Capital, Voluntary Motivation, Voluntary Activity, Network, Trust, Norm of Reciprocity, Altruistic Motivation, Selfish Motivation